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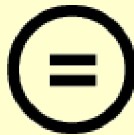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2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조선시대 무등산 유람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金 芝 姬

조선시대 무등산 유람 연구

A Study on Mudeungsan Excursion
in Chosun Dynasty

201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金 芝 姬

조선시대 무등산 유람 연구

지도교수 김 경 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金 芝 姬

김지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진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종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경숙 (인)

2015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v
I. 머리말	1
II. 무등산과 무등산 유람	3
1. 무등산에 대한 인식	3
2. 무등산을 찾은 사람들	11
3. 유람 경로와 적벽 유람	18
III. 유람 활동과 유산의 기억	27
1. 풍류와 문기 함양	27
2. 사찰의 지원과 교유	33
3. 유산의 기억과 회고	41
IV. 맺음말	47
[附錄]	49
參考文獻	52

ABSTRACT

A Study on Mudeungsan Excursion in Chosun Dynasty

Kim jee hee

Advisor : Prof. Kim kyeong sook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word, “excursion” implicates the meaning of wandering and seeing. Regardless of the times, people want to experience new things breaking away from their routine, and excursion is a type of culture originated from this desire. The excursion which they get around the famous places to enjoy does not limit the particular space and time. Especially in our country, the excursion has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since we have lots of mountainous area and our living zone is adjacent to the nature.

Meanwhile, the excursion in Chosun dynasty became part of gentry’s lives. Gentry acknowledged the excursion itself as one of the study and training processes, and the excursion that had been prevailed rapidly since mid-Chosun dynasty was positioned as the representative culture of gentry in late-Chosun.

To meet this trend, many excursionists have been to Mudeungsan which was the authentic one in Gwangju. The excursionists who visited

Mudeungsan could be classified as the neighbors and outsiders. The fact that lots of outsider excursionists visited Mudeungsan beside the people who lived in Honam region implicated this mountain was national famous attraction.

They utilized the different routes according to the entry roads of the trip. The entry roads for tracking of Mudeungsan mainly utilized were the route of Jeungsimsa Temple, the route of Whasoon, and the route of Damyang. Among these, the route of Damyang connects from Red Wall to Mudeungsan seemed to be used so frequently by the excursionists who enjoyed both places. In fact, both Mudeungsan and Red Wall are the representative attractions of Honam region where many excursionists took a trip for both places at the same time.

From the excursion of Mudeungsan like this, gentry were shown to perform a variety of activities. One of the typical activities was Poongryu (refined activities), which was confirmed with the interactions with the monks quite often. However, these two groups shared with the general excursion activities other than Mudeungsan. Together with this general activity, the excursion in Mudeungsan had some unique features mentioned the famous figures from this area to connect with this mountain. Mudeungsan area has been famous for the place of talents such as Kyung Myung Ko, Choong Shin Jung, and DukRyung Kim from a long time ago. The perceptions on the connection of them with Mudeungsan and the talent generations by the energy of this mountain were prevailed in Chosun dynasty. Ultimately, this was demonstrated by unique features only for Mudeungsan which was not seen in other excursion.

I. 머리말

“遊覽”이라는 말은 돌아다니며 구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유람은 바로 이 욕구에서 발현된 문화형태인 것이다. 이름 난 자연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즐기는 유람은 특정 공간과 시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형적으로 산이 많고, 생활권이 자연과 인접해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유람은 오랜 시대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그러던 중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람은 사대부들 삶의 일부가 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 유람문화 성행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중국 유람문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는 명 중기부터 유람문화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었는데, 명나라에서 유행한 유람문화는 조선의 사대부들을 자극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접 유람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공자의 泰山 등정과 朱子の 南嶽 유람이 본보기가 되어 사대부들은 유람 자체를 학습과 수양의 실천과정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 중기 이후 급격히 성행하게 된 유람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대부들의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

이러한 흐름에서 광주 무등산에도 많은 유람객들이 찾았다. 그 가운데는 유람도중 혹은 유람 이후에 詩나 記를 남긴 이들도 적지 않다. 때문에 광주의 무등산 유람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정민은 한 문학 중 수집 편의 무등산 관련 자료에 기려진 무등산의 표상 의미를 연구 하였다.¹⁾ 이어서 김대현은 무등산 유산기를 19세기 이전 작품과 20세기 작품으로 나누어 각 시대별 유산기에서 나타나는 무등산 묘사와 서술방식을 검토했고,²⁾ 박명

1) 정 민, 「한문학 유산 속에 기려진 무등산의 표상-산수유기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1권, 1998

2) 김대현, 「무등산 유산기에 대한 연구」, 『남경 박준규 박사 정년기념논총』, 1998·
김대현, 「20세기 무등산 유산기 연구」, 『한국언어문학』 46권, 2001

회는 무등산 유람을 통한 시문을 분석하여, 무등산의 시적 형상화를 살펴보고 각각의 형상화에 따른 특징을 검토하였다.³⁾ 이 외에 무등산 유산기 중 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권재는 무등산 유산기의 대표로 볼 수 있는 高敬命의 「遊瑞石錄」에 나타난 산문문학의 특징을 이해하고 당시의 산수관을 살폈으며,⁴⁾ 김덕진은 두 편의 무등산 유산기를 남긴 羅燾圭의 「瑞石錄」과 「瑞石續錄」을 비교분석하여 두 편의 유산기에 나타난 나도규의 유산의식을 검토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⁵⁾ 이를 보면 무등산 유람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문학·한문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역사적 접근은 김덕진의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등산을 유람한 많은 사대부들이 남긴 글을 중심으로 무등산 유람의 실태 및 그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선시대 무등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무등산을 찾은 인물들은 누구이며, 어떤 경로를 이용하여 유람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유람 중 이루어진 여러 활동을 분석하고 무등산 유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3) 박명희, 「조선조 문인의 무등산 유람과 시적 형상화」, 『동방한문학』 46권, 2011

4) 이권재, 「제봉 고경명의 『유서석록』 연구」, 『고시가연구』 8권, 2001

5) 김덕진, 「나도규의 무등산 유산기와 지역의식」, 『지역과 역사』 26권, 2010

II. 무등산과 무등산 유람

1. 무등산에 대한 인식

무등산은 광주의 鎭山이다. 진산은 ‘한 마을이나 고을의 중심이 되는 산’을 의미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진산은 한 지역을 대표하는 산으로서 고려에서 조선시대를 걸쳐 국도 및 지방 군현마다 각각 하나씩 지정되었다. 이렇게 지정된 광주의 진산이 바로 무등산인 것이다. 『高麗史』에는 “無等山 光州之鎭.”⁶⁾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광주의 진산이 무등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 된 기록으로, 이러한 인식은 이후 계속해서 이어졌다. 다음은 『世宗實錄地理志』의 무진군 기사 내용이다.

진산은 무등이다. 【군의 동쪽에 있다.】⁷⁾

짧은 문장이지만 무등산에 대한 인식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東國輿地勝覽』에서도 무등산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앞의 두 사료에 비해 비교적 길고 자세한 설명이 적혀있다.

무등산은 현의 동쪽 10 리에 있는데 진산이며, 일명 무진악 또는 서석산이라고도 한다. 하늘같이 높고 큰 것이 웅장하게 50여 리에 걸쳐 있다. 제주도의 한라산, 경상도의 남해·거제도 등이 모두 한눈에 들어온다. 이산 서쪽 양지 바른 언덕에 돌기둥 수십 개가 즐비하게 서 있는데 높이가 백 척이나 된다. 산 이름 서석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⁸⁾

『동국여지승람』에는 무등산의 위치와 더불어 진산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무

6) 『高麗史』 권71. 지제25. 약2. 백제약.

7) 『世宗實錄地理志』 전라도. 장흥 도호부, 무진군편.

8) 『東國輿地勝覽』 권35. 전라도. 광산현. 산천조.

등산의 별칭과 함께 서석대에 대한 묘사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은 모두 조선 전기의 기록들로서, 무등산에 대한 조선 전기의 인식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다. 무등산을 진산으로 보는 조선 전기의 인식은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18세기 지리지 『輿地圖書』를 보면 “무등산은 옥과 설산으로부터 내려와 주맥이 된다. 주의 동쪽 10리에 있다.”⁹⁾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맥이란 으뜸이 되는 산줄기를 의미하는 말로 이 역시 진산과 마찬가지로의 의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명산을 집대성한 조선 후기 실학자 成海應(1760~1839)은 그의 저서 『東國名山記』에서 전라지역의 명산으로 무등산을 언급하기도 했다.¹⁰⁾

20세기의 사람 梁會甲(1884~1961)의 기록에서도 무등산은 鎭山으로 등장한다. 양희갑은 1935년 5월에 무등산을 유람하고 「瑞石山記」를 남겼는데, 「서석산기」의 도입부에는 무등산에 대한 그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서석산은 남쪽 고을의 거대한 진산이다. 우뚝하기가 마치 성인이 엄숙히 아래에 임하여 성색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산이 마치 머리를 우러러 명을 듣는 것 같았다.¹¹⁾

양희갑도 무등산을 진산으로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무등산의 모습을 성인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주변의 다른 산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조선 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으로써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산이란 고을을 지켜준다고 여기는 산이었으므로 영험하고 신령스러운 존재 그 자체였고, 이는 무등산도 마찬가지였다. 1393년 태조는 국내의 명산·대천·성황·해도의 신에게 작호를 부여했는데, 이때 광주의 무등산에는 護國伯의 작호가 내려졌다.¹²⁾ 이 작호는 세종대에 단행된 예제개혁으로 산천신에 대한 봉작제도가 폐지

9) 『輿地圖書』 전라도. 광주. 산천조.

10) 최원석, 「한국의 명산문화와 조선시대 유학 지식인의 전개」 (『남명학연구』 26권, 2008), 240p

11) 梁會甲, 『正齋集』 8券, 「瑞石山記」 (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194p)

되면서 사라지게 되지만,¹³⁾ 무등산의 신령스러움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무등산을 찾아와 제사를 지냈다. 崔溥(1370~1452)의 『漂海錄』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다음은 최부의 배가 제주도에서 육지로 오는 길에 표류하자 선원인 安義가 그에게 한 말이다.

“이번 행차가 표류해 죽게 될 까닭을 나는 알고 있었다. 자고로 무릇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광주 무등산의 신사와 나주 금성산의 신사에 제사를 지냈으며, 제주도에 육지로 나오는 사람들도 모두 광양의 차귀·천외·초춘 등의 신사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떠났던 까닭으로, 神의 도움을 받아 큰 바다를 순조롭게 건너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경차관은 특별히 큰소리를 치면서 이를 그르케 여겨, 올 때도 무등산과 금성산의 신사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갈 때도 광양의 여러 신사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 신을 업신여겨 공경하지 않았으므로, 신 또한 돌보지 아니하여 이러한 극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누구를 허물하겠는가?”¹⁴⁾

안의는 표류의 이유를 무등산 신사와 금성산 신사, 그리고 광양의 신사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최부를 책망했다. 이에 최부는 미혹된 것이라며 항변했지만, 최부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고 모두들 안의의 말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이를 보면 당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나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등산에 들러 무사항해를 기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545년에 제주목사로 부임한 林亨秀(1514-1547) 역시 제주도로 가는 길에 무등산에 들러 제사를 지냈는데, 다음의 시로 전해진다.

一片孤衷天地知	한 조각 외로운 충정 천지도 알아
南來不怕鬼神疑	남으로 오면서 귀신이 의심해도 두렵지 않네
淸漿一盞荒祠下	맑은 술 한 잔 쓸쓸한 사당에 올리니
不獨衡山識退之	衡山만이 退之를 아는 것은 아니라네 ¹⁵⁾

12) 『太祖實錄』 2년 癸酉(1393) 1월21일 (丁卯) 기사.

13) 『世宗實錄』 11년 己酉(1429) 11월11일 (癸丑) 기사.

14) 崔府, 『錦南集』 「漂海錄」

15) 林亨秀, 『錦湖遺稿』 七言絕句 「渡濟海. 祭瑞石祠」

이렇게 신령스러운 산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호남지역의 지방관들은 가뭄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무등산을 찾았다. 1615년 광주목사로 부임한 洪命元(1573~1623)은 광주에 가뭄이 들자 무등산 천제단을 찾아 기우제를 지내며, “비록 지난해에 가뭄이 들어 호남 땅이 모두 붉게 탔을 때도 다만 이 한 고을만은 경작에 어그러짐 없어 유리전전 면했네. 이 누구의 힘이런가?”라고 하였다.¹⁶⁾ 1614년의 큰 가뭄에서도 광주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무등산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가뭄에도 비를 내려 그 피해를 줄이고자 바라는 것이다.

1781년에는 전라감사 朴祐源(1739~1774) 역시 가뭄으로 인해 무등산을 찾았는데, 그가 무등산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전라감영으로 돌아가던 중 장성에 이르러 비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¹⁷⁾ 黃玪(1855~1910)의 『梅泉野錄』에도 무등산에서의 기우제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76년 가뭄에 전라감사 정범조가 날씨가 몹시 가물 때면 군읍에서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기우제를 지냈고 수령이나 방백들은 축을 지어 예를 따랐으니 자못 민폐만 더 끼치게 되었다. 심하면 소를 잡아야 했고 술을 담당해야 했으며 산사에서 창기까지 데리고 돌게끔 요구하는 자도 있었다. 오직 전라 감사 정범조만은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주전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친히 도내의 각 산을 다니며 기도를 드렸는데 그가 무등산에서 기도를 드릴 때는 찌는 듯한 더위에 길바닥에 앉아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하늘에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그가 무릎을 꿇고 향해 있는 곳에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끼더니 조금 빗방울이 떨어져서 백성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¹⁸⁾

전라감사 鄭範朝(1833~1897)가 직접 도내 각 산을 다 다녔다는 기록을 보면 당시의 가뭄은 꽤나 심각했던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우제를 위한 여정 중 무등산을 몇 번째로 방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무등산에서 기우제를 지내던 중 비

16) 洪命元, 『海峯集』 第3券. 祭文. 「無等山禱雨祭文」

17) 『承政院日記』 정조 5년 7월10일(경술) 기사.

18) 黃玪, 『梅泉野錄』 第1卷 甲午以前 上 ⑤

가 왔다는 기록은 당시 무등산의 신령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기록에 나타난 것 외에도 당시의 많은 지방관들이 비를 바라며 무등산을 찾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등산 기우제의 효험에 대해서 광주사람 羅燾圭(1826~1885)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매번 큰 가뭄 때면 반드시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니 마치 노나라에 무우가 있는 것과 같은가? 풍수지리가가 매번 이 땅을 몹시 칭찬하여 “사방을 둘러싸서 머리를 숙여 읍함이 대략의 절차가 있는 듯하다.”라고 하였다.¹⁹⁾

舞雩는 기우제를 이르는 말로, 공자의 제자 증점이 악공과 무희를 불러 춤을 추며 기우제를 지내고 오겠다고 한 말에서 전해진다. 나도규는 무등산 기우제를 바로 노나라의 무우와 비교하며 무등산 기우제의 효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풍수지리가 역시 무등산을 몹시 칭찬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많은 기우제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무등산에서의 제사는 영험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기우제 외에도 여러 제사가 무등산에서 이루어졌는데, 광주 목사 徐滢修(1749-1824)는 무등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광주의 무등산은 호남 53주의 중심이 되는 산인데 산에 제단이 있어서, 도에 수재·한재·질병·역병을 기양하던 장소이다. … 홍수와 가뭄에 반드시 감응함이 있었다.²⁰⁾

서형수 역시 무등산이 홍수와 가뭄에 영험한 효과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그에 앞서 무등산에서 여러 제사를 지냈음을 말하고 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무등산은 도의 여러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기우제를 포함하여 도의 수재·한재·질병·역병을 기양하는 장소였다. 실제로 1661년에 진라감사 金始振(1618~1667)이 무등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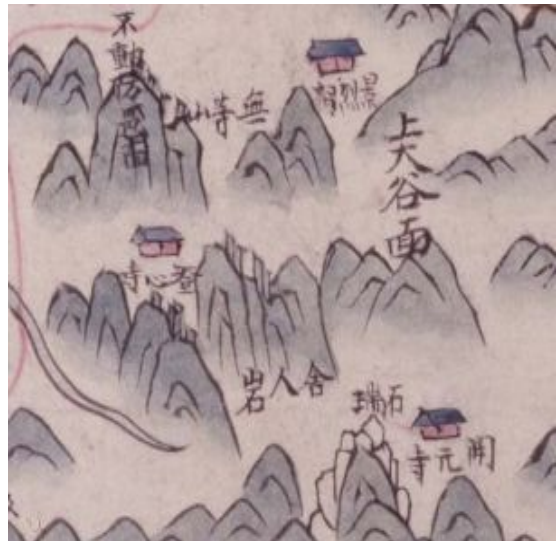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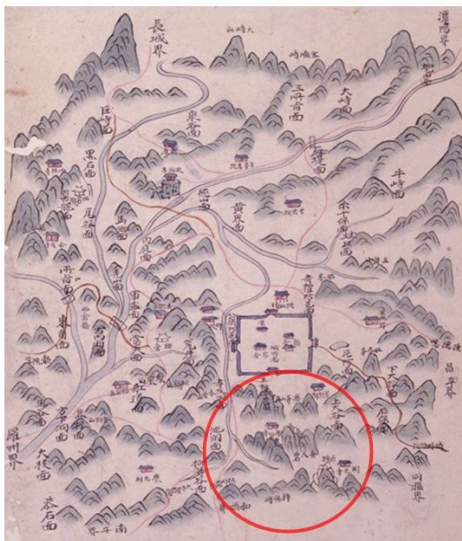
19) 羅燾圭, 『德巖漫錄』 「瑞石錄」 (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98p)

20) 徐滢修, 『明阜全集』 券11, 雜著, 「無等山佛明庵重修募緣文」

厲疫을 막아달라는 제사를 지낸 기록도 전해진다.²¹⁾

이러한 무등산의 위상은 앞서 살펴본 기록들뿐만 아니라 당시 제작된 군현지도에도 볼 수 있다. 군현지도는 그 특성상 행정의 중심지인 邑治는 크게 확대되어 그려지고 나머지는 소축적으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당시 지방통치에 중요한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그렇지 않은 요소들은 생략되는 것이다. 여기서 선택되는 중요한 사항들은 고을 전체의 지형지세, 읍치 공간의 관청이나 제사 공간, 각 촌락의 분포와 거리, 군사적 요충지, 재정적인 요소, 유교적인 교화에 필요한 각종의 상징물 등이 해당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광주지역의 군현지도는 『해동지도』, 『호남읍지』, 『1872년 지방지도』, 『광주읍지』로 총 4개가 전해지고 있다.²²⁾ 이 지도들을 보면 지역의 진산으로써 가지고 있던 무등산의 위상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네 지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해동지도』에는 무등산



<그림 1> 『해동지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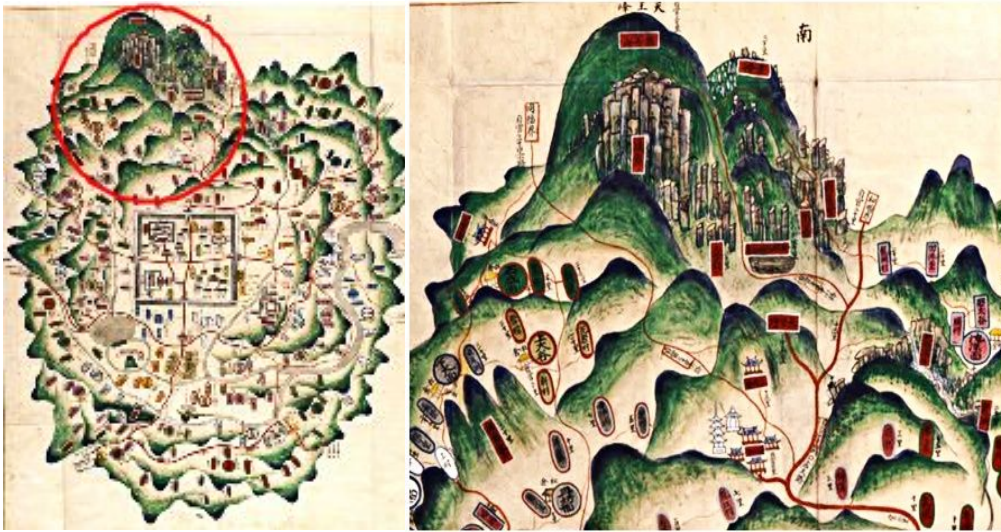
광주지도(왼쪽)와 무등산 확대 부분(오른쪽)

21) 金萬英, 『南圃集』 卷14 「南郊日記」

22) 『해동지도』 (<http://e-kyujanggak.snu.ac.kr/geo/main/main.jsp>)

2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 사이트에 수록된 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참고.

이 원래 위치한 고을의 북동쪽에 그려져 있다. 확대해서 살펴보면 증심사나 사인암, 서석 등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등산의 상징인 주상절리도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1872년 지방지도』 24)
광주지도(왼쪽)와 무등산 확대 부분(오른쪽)

그런데 이후 제작된 『1872년 지방지도』를 보면 무등산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여, 무등산이 읍치 북쪽에 자리하면서 主山의 모습을 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호남읍지』와 『광주읍지』에 수록된 지도 역시 무등산을 읍치의 북쪽에 그렸는데, 당시의 이러한 지도제작은 고을의 鎭山인 무등산을 더욱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72년 지방지도』는 무등산 자체를 지역의 중심인 읍치만큼이나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등산의 3대 石臺인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의 수려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으며, 무등산의 유일한 폭포인 용추폭포 역시 묘사되어 있다. 또한

(<http://e-kyujanggak.snu.ac.kr/>)

『해동지도』(1750년대 제작) : 광주목지도 부분

『호남읍지』(1871년 제작) : 광주목지도 수록 (규장각소장)

『1872년 지방지도』(1872년 제작) : 광주지도 부분

『광주읍지』(1895년 제작) : 광주군지도 수록 (규장각 소장)

24) 『1872년 지방지도』(<http://e-kyujanggak.snu.ac.kr/geo/main/main.jsp>)

무등산 자락마다 자리하고 있는 많은 사찰과 암자들의 모습도 자세히 그려져 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1872년 지방지도』에서의 무등산은 『해동지도』에 그려진 무등산에 비해 분명히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무등산의 위상이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더 강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편찬 사료에서부터 개인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료에서 무등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으로써 영험하고 신령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는데, 무등산의 영험함은 광주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는 호남전체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진산이자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이러한 인식은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져 유람을 즐기던 많은 사대부들로 하여금 무등산을 찾게 하였다.

2. 무등산을 찾은 사람들

무등산은 호남을 대표하는 유람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인물들이 무등산을 찾았다. 조선시대 무등산을 유람한 인물 중 유람기록을 남긴 인물은 총 45명이 확인되는데, 이들의 생몰년도와 유람시기, 유람당시 거주 지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²⁶⁾

<표 1>. 조선시대 무등산 유람 인물

유람자	생몰년도	유람시기	거주지역	비고
김시습(金時習)	1435~1493	미상		
최충성(崔忠成)	1458~1491	1486년	영암	
최산두(崔山斗)	1483~1536	미상	동북	
정지유(鄭之遊)	15~16세기	미상	전라도	
임훈(林薰)	1500~1584	1557년		광주목사
정심(鄭謹)	1520~1602	미상	나주	
휴정(休靜)	1520~1604	미상		
기대승(奇大升)	1527~1572	1557년	나주	
김부륜(金富倫)	1531~1598	1586년		동북현감
고경명(高敬命)	1533~1592	1574년	광주	
김성일(金誠一)	1538~1593	1586년		나주목사
유정(惟政)	1544~1610	미상		
최희량(崔希亮)	1560~1651	미상		능주목사
정운희(丁運熙)	1566~1635	미상	고흥	
이안눌(李安訥)	1571~1637	1610년		담양부사
정홍명(鄭弘溟)	1582~1650	미상		김제군수
이민서(李敏紱)	1633~1688	1677년		광주목사
김창협(金昌協)	1651~1708	미상	서울	
김창흠(金昌翕)	1653~1722	1717년	서울	
신익황(申益愷)	1672~1722	미상	경상도	
유승(柳乘)	1677~1746	미상	광주	
임상덕(林象德)	1683~1719	미상		능주목사

김도수(金道洙)	1699~1733	1726년		
위백규(魏伯珪)	1727~1798	미상	장흥	
정약용(丁若鏞)	1762~1836	1778년	화순	
홍석주(洪奭周)	1774~1842	1803년		경시관 (전라도)
이정규(李鼎圭)	1779~1857		영광	
조인영(趙寅永)	1782~1850	1829년		전라도관찰사
양진영(梁進永)	1788~1860	미상	화순	
조봉묵(曹鳳默)	1805~1883	1828년	화순	
김병연(金炳淵)	1807~1863			
나도규(羅燾圭) ²⁵⁾	1826~1885	1868년	광주	
한장석(韓章錫)	1832~1894	1874년		경시관 (전라좌도)
송병선(宋秉璿)	1836~1905	1898년	충청도	
홍삼우당(洪三友堂)	1848~?	1886년	전라도	
이연관(李淵觀)	1857~1935	1891년	광주	
김운덕(金雲惠)	1857~1936	1909년	전라도	
조종덕(趙鍾德)	1858~1927	1919년	순천	
이정회(李正會)	1858~1939	1919년	보성	
양재경(梁在慶)	1859~1918	1912년	화순	
엄재신(廉在愼)	1862~1935	1892년	보성	
고재봉(高在鵬)	1869~1936	1895년	창평	
김태석(金泰錫)	1872~1933	미상	광주	
양회갑(梁會甲)	1884~1961	1935년	화순	
김호영(金鎬永)	1907~1984	1957년	전라도	

위의 표를 보면 무등산을 찾은 유람인은 무등산 인근의 호남지역 인물과 외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외지인에는 호남지역에 부임한 지방관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등산을 찾은 유람인은 첫째, 호남지역 출신 인물. 둘째, 호남지역에 부임한 관리. 셋째, 외지에서 무등산을 찾은 인물로 나누어 각각 설명하도록 하겠다.

25) 나도규의 경우 1868년과 1874년 두 번의 유람이 있었지만, 수치통계를 위해 1868년 유람을 기준으로 기록하였다.

26) 무등산을 유람한 인물을 정리한 표는 한국고전번역원DB에 수록된 문집을 조사하여 詩, 記, 行蹟 등에서 무등산 유람에 관한 언급이 나타난 인물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유람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람자의 몰년을 기준으로 하여 순서를 정하였다.

① 호남지역 출신 인물

먼저 무등산 인근의 호남지역 출신 인물을 살펴볼 수 있다. 표를 보면 광주지역에 거주한 高敬命(1533~1592) · 羅燾圭(1826~1885) · 金泰錫(1872~1933)등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인물이 화순, 보성, 순천 등 호남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확인 된 유람인 44명 중 25명이 호남지역에 거주한 인물로 수치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비교적 무등산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무등산을 바라보며 유람을 염원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曹鳳默(1805~1883)은 자신이 사는 능주가 무등산과 가까워 문을 열면 무등산이 바라다 보였기에 “언제나 한번 가보려는 뜻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²⁷⁾ 1912년에 무등산을 유람한 梁在慶(1859~1918) 역시 무등산 유람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는데, 다음은 「遊瑞石山記」의 내용이다.

동산에 올라 보면 노나라가 작고, 태산에 오르면 천하를 작게 여겨, ... 호남의 산이 크고 우뚝하나 높이 빼어나 거인의 모습을 한 것은 오직 서석산만이 그러하다. 이 산을 오르면 곧 호남이 반드시 작게 여겨질 것이나 나의 소견이 심히 협소하니 어찌하리오! 하물며 옥십 리 내에 이 산이 있는데도 아직 한 번도 산의 정상에 올라 나아가 그 전체를 보지 못했으니 또한 딱하구나. 올해 나이 오십 사세가 되어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여 반드시 소견이 높아지기를 기다려야 될 것인즉, 이 또한 막연하여 기약이 없구나. 이에 문득 몸을 일으켜 지팡이를 짚고 길을 나섰으니 때는 임자년 사월 초하루이라. ²⁸⁾

양재경은 동산에 올라보면 노나라가 작고, 태산에 오르면 천하를 작게 여긴다는 공자의 말을 빗대어 무등산을 오르면 호남을 작게 여길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있다. 더불어 옥십 리 내에 무등산을 두고도 아직도 유람하지 못한 자신을 딱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다가 문득 결심을 하고 유람을 시작했다.

27) 曹鳳默, 『華郊遺稿』 「遊無等山記」 (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78p)

28) 梁在慶, 『希庵遺稿』 8券 「遊瑞石山記」 (위의 책 171p)

이 같이 평소에도 무등산 유람을 염원했던 이들이었기에, 호남지역 출신 인물 중에는 여러 번에 걸쳐 무등산을 유람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광주 사람 고경명은 「遊瑞石錄」의 서두에 자신이 고장의 산인 무등산을 이미 여러 번 방문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서석산은 곧 우리 고장의 산이다. 어려서부터 장성하기까지 여러 번을 올라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그윽한 산골 물과 깊은 숲을 두루 구경하여 발자국이 닳지 않은 곳이 없었다.²⁹⁾

나도규 역시 무등산을 두 번 유람했다. 나도규는 1868년에 무등산을 한차례 유람했지만, 한 번의 유람은 코끼리를 만지는 소경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1874년에 다시 한 번 무등산 유람길에 오른다. 조선시대 유람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던 점을 미루어본다면, 이들이 무등산을 여러 번 유람한 것은 무등산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호남지역에 부임한 관리

다음으로는 호남지역에 부임한 관리들을 살펴볼 수 있다. 무등산을 유람한 인물 중에는 지방관·관찰사·경시관 등의 관직에 있던 인물들도 다수 보이는데, 이들은 호남지역에 부임하여 재직 중에 무등산을 유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지방관은 林薰(1500-1584)·金富倫(1531-1598)·金誠一(1538~1593) 등이 있으며 이들의 부임지는 광주를 포함한 호남 전역으로 나타난다. 부임지를 둘러보는 巡視 역시 지방관의 업무에 해당했으므로 이는 유람의 좋은 구실이 되었고, 많은 지방관들은 부임지의 순시와 유람을 병행했다.

때문에 사대부들은 외지로 부임된 것을 유람 가는 길로 비유하기도 했다. 崔嵬(1539~1612)은 朴東亮(1569~1635)이 강원감사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박공

29) 高敬命, 『齋峰集』 「遊瑞石錄」 (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36p)

이 이제야 비로소 기막힌 유람을 하게 되었구나.”라고 말했고,³⁰⁾ 張維(1587~1638)는 강원도 관찰사로 떠나는 李敏求(1589~1670)에게 “금강산 유람하러 이번 길 마련하였구려”라는 구절을 시로 전하기도 했다.³¹⁾

하지만 일부 지방관은 유람에 빠져 民事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탄핵의 사유가 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숙종 39년(1713년) 무주부사 韓配夏(1650~1722)를 탄핵하는 상소 중 일부인데, 이 일로 한배하는 파직되었다.

“무주 부사 한배하는 일찍이 호백(湖伯)을 맡아 불법한 일이 많았고, 본부에 부임하고 나서는 고을 기생들을 많이 데리고 금지된 육류를 가득 신고서 멀리 속리산으로 유람하는 행차를 하였습니다. 선생을 빙자해 驛馬를 조발시키고는 음악과 여색을 신고서 산방에 오랫동안 체류하며 음식과 말을 열읍(列邑)에 요구하십니다. 방자하여 기탄하는 바가 없었으니, 마땅히 논벌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³²⁾

호남지역 지방관의 무등산 유람에서는 이러한 폐단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광주목사 임훈은 공무 중 여가시간이 날 때마다 짚신을 신거나 가마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유람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³³⁾ 1574년 고경명의 무등산 유람 역시 임훈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는데, 그는 유람에 앞서 고경명에게 유람을 함께 하자는 서신을 보내고, 유람 도중 악공들을 동반하는 등 시종일관 유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무등산 유람에서는 두 명의 경시관도 보인다. 그 중 韓章錫(1832~1894)은 1874년 봄에 전라좌도 경시관에 차임된 인물로, 그는 화순과 임실에서 시취를 맡았다. 시취 이후 그는 동복의 적벽, 광주의 무등산 등을 유람하고, 도성으로 복귀할 때까지의 41일 1,947리의 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³⁴⁾

30) 崔岵. 『簡易集』 第3卷 序. 「送朴子龍公江原監司序」

31) 張維, 『谿谷集』 谿谷先生集 第31卷. 七言律詩. 「送李子時觀察關東」

32) 『肅宗實錄』 39년 癸巳(1713) 5월26일 (壬寅) 기사.

33) 林薰, 『葛川集』 卷4, 附錄, 「行狀」

34) 韓章錫, 『眉山集』 「江南幹事」

③ 외지에서 무등산을 찾은 인물

마지막으로 외지에서 무등산을 찾은 인물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이름난 유람인으로는 金昌翁(1653~1722) · 金炳淵(1807~1863) · 宋秉璿(1836~1905) 등이 확인된다. 이들은 대부분 조선팔도 각지의 명소를 유람한 인물들로, 남도유람의 일환으로 무등산을 유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창흡은 일찍부터 은거생활을 시작하여 전국의 명승지를 유람한 인물이다. 전국을 유람하며 5,000여 수에 이르는 시를 남긴 김창흡은 조선 후기 학문과 문화 예술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³⁵⁾ 김창흡과 그의 형 金昌協(1651~1708)으로 대표되는 농연그룹은 18세기에 이르러 ‘紀遊文藝’라는 새로운 문예양상을 촉진시키기에 이른다. 기유문예는 산수를 유람하고 느낀 감회를 담아낸 詩 · 書 · 圖 등 모든 문예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김창흡의 경우 수많은 유람시가 기유문예에 포함된다. 김창흡은 1717년 무등산을 유람할 때 역시 유람시를 남겼는데, 그의 문집 『三淵集』에는 「입석」과 「서석산 상봉」이라는 무등산 유람시를 전하고 있다.

김삿갓으로 잘 알려진 김병연은 자신의 조부 김익순이 홍경래 난 때 홍경래에게 항복한 사실을 알고는 은거생활을 하며 전국을 유람한 인물이다. 그는 한 때 무등산과 적벽을 유람했으며, 말년에 적벽에서 보내다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그가 무등산과 적벽을 유람하고 남긴 시이다.

無等山高松下在 무등산이 높다 하되 소나무 아래 있고
赤壁江深沙上流 적벽강이 깊다 하되 모래 위에서 흐르네³⁶⁾

송병선 역시 지리산 · 백암산 · 덕유산 · 월출산 · 천관산 등 전국의 유명한 명산들을 찾아 유람한 인물이다. 1898년 호남지역 유람 중 무등산을 유람한 송병선은 「瑞石山記」를 남겼는데, 여기에는 무등산에 대한 그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35) 김문준, 「김창흡의 학문경향과 후대의 영향」(『한국인물사연구』 2권, 2004), 2쪽

36) 이 시는 김병연이 종명할 무렵에 머물렀던 동북의 한 민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김덕진, 『무등산 옛길 위의 광주』(2011) 106p)

다음은 「서석산기」의 일부 내용이다.

① 호남의 여러 산 가운데서 서석산이 가장 웅장하므로, 특별히 무등산이라고 부른다.³⁷⁾

② 서석산은 추월산으로부터 나와서 땅에서 솟아나 높고 커졌으며 높디높아 진산을 이루고 남국의 형산(銅山)이 되었다. 또 남쪽으로 수백 리를 달려 백운산과 천관산이 솟아났고, 월출산에서부터 바다로 들어가 한라산이 되었다고 한다.³⁸⁾

송병선은 무등산을 호남의 산 중에 가장 웅장한 산으로 나타냈으며, ‘진산’이자 남국의 ‘銅山’으로 비유하였다. 형산은 중국 五嶽 가운데 남쪽에 있는 산으로, 무등산을 이에 비유했다는 점은 그가 무등산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무등산을 찾은 유람객들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무등산을 찾은 인물 중 호남지역의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앞서 살펴본 지역의 진산으로써 가진 무등산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호남지역에 부임한 관리들을 포함한 많은 외지인 역시 무등산을 찾았다는 사실은 무등산이 지방의 한 유람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름난 유람지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37) 宋秉瑤. 『淵齋集』 「瑞石山記」 (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118p)

38) 宋秉瑤. 『淵齋集』 「瑞石山記」 (위의 책 121~122p)

3. 유람 경로와 적벽 유람

1) 무등산 유람 경로

무등산 유람의 경로는 무등산을 유람한 이들이 남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등산을 유람한 사대부들은 유람 이후 詩나 記의 형태로 유람의 흔적을 남겼는데, 유람시의 경우에는 단편적인 기록이라 유람의 경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유산기를 기반으로 하여 유람의 경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7편의 무등산 유산기에 기록된 무등산 유람의 경로는 다음 표와 같다.³⁹⁾

<표 2>. 무등산 유람 경로

유람인물	출발 지역 ⁴⁰⁾	경로
고경명	광주	① 증심사 - 취백루 ② 증각사 - 중령 - 냉천정 - 입석암 - 불사의암 - 염불암 ③ 상원등 - 상봉 - 서석 - 삼일암 - 은적사 - 석문사 - 금석사 - 대자사(소은굴) 옛터 - 규봉암 - 광석대 - 문수암 - 자월암 - 풍혈대와 장추대 - 은신대 - 청학대, 범화대 - 문수암 ④ 광석대 - 송하대 - 영신동 - 방석보 - 장불천 - 노루목 - 창랑 - 적벽 - 오봉사 - 이점 - 소쇄원 - 식영정 - 서하당 ⑤ 서하당, 식영정
정약용	화순	상봉 - 중봉 - 규봉
조봉묵	능주	화순 만연사 동암 - 입석대 - 서석대 - 천왕봉 - 광석대 - 풍혈대
양진영	능주	상봉 - 입석 - 서석 - 규봉
나도규 (서석록)	광주	증심사 - 장불치 - 입석대 - 서석대 - 비로봉 - 반야봉 - 천왕봉 - 석문 - 광석대 - 풍혈대 - 광석대 - 학수치 - 백토현 - 본성
나도규 (서석속록)	광주	금당 - 화산 - 광치 - 사동 - 승두치 - 입석대 - 서석대 - 상봉 - 광석대 - 석실 - 장불치 - 용추 - 상원암
홍삼우당	구례, 곡성 근처	사곡(임실) - 수락사 - 백련암 - 귀미암 - 설사현(곡성 옥과) - 과치 - 옥천사 - 옥련암 - 청계동 - 서봉사(담양군 남면) - 심적암 - 주봉 - 상봉(천왕봉) - 서석대 - 입석대 - 풍혈대

39) 현재 무등산 유산기는 『국역무등산유산기』(2010)에서 전하는 18편과 염재신의 「遊瑞石山記」(2011년 전남대학교 김대현교수 발견)으로 총 19편이 전해지고 있다. 그중 정지유의 「遊瑞石山記」과 김호영의 「瑞石山記」에는 유람의 경로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 자료로는 이용하지 않았다.

		- 광석대 - 규봉 - 영신촌 - 신기촌 - 물염정 - 나루터 - 선서촌 - 과치 - 중산 - 갈담
이연관	광주	① 광산성 - 증심사 ② 입석대 - 광석대 - 풍혈주 - 주검굴 - 용추동 - 원효암
염재신	보성	적벽, 물염정 - 도원동 - 규봉암 - 광석대 - 풍혈대 - 석실 - 중봉 - 규봉암 - 하산
고재봉	창평	초연루 - 작봉 - 서석 - 입석 - 반야봉과 비로봉 - 천왕봉 - 풍혈대 - 광석대 - 규봉암 - 삼존석 - 삼치
송병선	충청도 회덕	① 소쇄원-사인암-풍암정 - 원효사 ② 의상암 옛터 - 함춘령 - 서석대 - 입석대 - 지공너덜- 규봉 - 광석대 - 삼존석 - 문수암 옛터 - 풍혈대 - 소운굴 - 도원동
김운덕	전라도	증심사 - 규봉암 - 광석대 - 풍혈대 - 규봉 - 지공대 - 서석대 - 수옥정 - 상봉 - 서석 - 원효사
이정희	보성	입교 - 화순 지곡리 - 대치 - 만수동 - 입석대 - 지장암 - 규봉암 (광석대)
조종덕	순천	동북 용계동 - 창평 망월촌 - 광석대 - 풍혈대 - 석실 - 광석대 - 지장암 - 천왕봉 - 서석대 - 입석대
김태석	광주	천왕봉 - 풍혈대 - 규봉 - 증심사, 약사암 - 원효사
양희갑	화순	적벽 - 물염정 - 영평리 - 규봉암 - 광석대 - 삼존석 - 석실 - 천 왕봉 - 입석대 - 지장암 - 입석 - 화순
양재경	능주	광석대 - 풍혈대 - 상봉 - 서석대 - 지장암 - 원효사 - 증심사

앞의 17편의 유산기 중 高敬命(1533~1592) · 李淵觀(1857~1935) · 宋秉璿(1836~1905)의 유산기만이 일정에 따른 경로가 자세히 나와 있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일정 구분 없이 경유지를 나열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각각의 경로에서 통일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무등산 내에서의 유람 경로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여러 유람기록을 종합해 본 결과 유람의 출발지역에 따라 무등산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달라지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무등산을 찾은 유람객들은 출발지역에 따라 크게 증심사 방면, 화순 방면, 담양 방면으로 나누어져 무등산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각각의 진입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각 진입로를 대표하는 인물의 유람 경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40) 출발지역은 유람당시 거주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당시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연관, 염재신, 김운덕의 경우에는 출생지를 기본으로 하였다.

① 증심사 방면

증심사 방면은 광주에서 출발한 유람자들이 많이 이용한 무등산의 서쪽 진입로이다. 광주사람인 고경명·나도규·이연관의 유람경로의 도입부에는 모두 증심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 증심사 방면의 진입로를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라도 사람 金雲惠(1857-1936) 역시 무등산을 유람할 때 증심사 방면으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 김태석의 경우 광주사람이지만 그의 기록에 처음으로 언급된 경유지가 천황봉이므로 그 이전의 유람 경로를 확인할 수 없어 아쉽다.



<그림 3> 高敬命의 유람 경로⁴¹⁾

증심사 방면으로 무등산을 오른 인물 중 고경명의 유람 경로를 대략적으로 살펴 보자면 위의 지도와 같다. 고경명은 증심사 방면을 시작으로 무등산 내 많은 곳을 유람한 뒤, 화순의 적벽을 경유해 담양의 소쇄원까지 이르렀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등산 권역 전체를 유람했다고 볼 수 있는데, 때문에 고경명의 무등산 유람은 후대에 무등산을 찾는 많은 유람객들에게 기준이 되었으며, 그의 「유서석

41) 네이버지도(<http://map.naver.com>) 참조. 이하 지도 동일.

록」은 이후 무등산 유람에 있어서 필수지침서로 작용한다.

다음의 그림은 무등산의 유일한 기행사경도인 「無等山圖」이다. 증심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그림은 원효사, 약사암과 더불어 상봉·서석·입석·광석·풍혈대·사인암까지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 당시 무등산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증심사의 모습을 정면에 두고 있는 이 그림은 작자가 증심사 방면에서 무등산을 바라보고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이 그림을 통해 19세기 증심사 방면으로 진입할 때 볼 수 있는 무등산의 풍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作者未詳, 「無等山圖」⁴²⁾

② 담양 방면

무등산에 진입하는 두 번째 진입로는 무등산의 북쪽 진입로인 담양 방면으로 나타난다. 담양 방면의 길을 이용한 유람객들은 무등산 유람에 앞서 소쇄원 일대를

42) 作者未詳, 「無等山圖」, 19세기, 62.0×103.0cm, 영남대학교 박물관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 길을 이용한 유람자로는 송병선 · 洪三友堂(1848~?) · 高在鵬(1869~1936) 등을 들 수 있다. 송병선의 경우 식영정과 소쇄원을 거쳐 무등산으로 들어왔다. 홍삼우당은 무등산에 오르기 전 담양군 남면에 위치한 서봉사를 경유하였는데, 서봉사는 소쇄원 인근에 있던 사찰이다. 또한 고재봉은 경유지역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당시 거주지역이 창평이므로 무등산 북쪽 진입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순천사람인 조종덕 역시 유람 전 창평 망월촌의 벗 고광록을 방문하고는 무등산을 올랐으므로 북쪽 진입로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지도는 송병선의 유람 경로를 나타낸 지도이다. 송병선은 남도 유람 중 지리산 유람을 마치고 직후 무등산으로 넘어왔다. 산의 북쪽인 담양방면의 소쇄원과 식영정을 거쳐 원효사를 지나 상봉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상봉 이후의 경유지는 자세히 확인되지 않아 이후 행적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그의 문집 『淵齋集』을 보면 무등산 이후 적벽을 유람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에 언급할 세 번째 진입로인 ‘화순 방면’ 진입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宋秉璿의 유람 경로

③ 화순 방면

무등산에 진입하는 세 번째 진입로는 무등산의 동남쪽 진입로인 화순 방면으로 나타난다. 화순 방면의 진입로는 주로 보성·화순·능주와 같이 광주의 동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출발하는 유람객에게 이용되었다. 廉在愼(1862~1935), 양회갑의 경우에는 동북의 적벽 일대를 유람하고 화순 방면 진입로를 통해 무등산을 유람하였다. 丁若鏞(1762~1836)·양진영·양재경은 유산 경로가 생략되어 확인이 어려우나 유람의 출발지역이 모두 동남쪽이므로 화순 방면의 진입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양회갑의 유람 경로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지도이다. 적벽에서 일행을 만난 양회갑은 무등산의 동남쪽 길을 따라 무등산에 진입한다. 이후 광석대를 둘러보고 상봉을 거쳐 다시 화순으로 돌아온다. 적벽과 무등산을 잇는 이 코스는 당시 무등산과 적벽을 함께 유람한 유람객들에 의해 빈번히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梁會甲의 유람 경로

2) 적벽 유람과의 병행

실제로 조선시대의 무등산을 유람한 인물들 중에는 상당수가 적벽 유람과 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무등산의 유람경로를 나타낸 <표 2>를 보더라도 고경명, 홍삼우당, 염재신, 양희갑의 경로에 적벽과 물염정이 등장하는데, 염재신과 양희갑의 경우에는 적벽을 유람하고 무등산을 유람했으며, 고경명과 홍삼우당의 경우에는 무등산 유람 이후 적벽을 유람했다. 하지만 적벽은 처음부터 이름난 유람지가 아니었다. 나주목사 金誠一(1538~1593) 이 동북현감 金富倫(1531-1598)과 함께 적벽을 유람하고 남긴 「遊赤壁記」의 내용을 살펴보자.

이 적벽은 우리나라의 한쪽 구석에 치우쳐서 잡초와 골짜기 사이에 파묻혀 있으니, 수백 년이 지나도록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최 사인(崔舍人)이 이곳으로 유배와서 산 이후로 적벽의 이름이 비로소 드러난 것이 중국의 적벽이 소선을 만나서 이름이 드러난 것과 같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⁴³⁾

위 내용에 따르면 적벽은 위치상 구석에 치우쳐있고, 잡초와 골짜기에 파묻혀있어 오랜 기간 동안 찾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최사인이 이곳으로 유배와 적벽을 찾으면서 적벽이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최사인은 신재 崔山斗(1483~1536)를 이르는 말이다. 최산두는 광양 출신 사람으로 『性理大全』에 정통한 문신으로 뽑힐 만큼 성리학에 밝았다. 그러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는데, 이때 그의 유배지가 동북이었다. 유배 중 적벽을 발견한 최산두는 소동과의 적벽부에서 이름을 따서 적벽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고경명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적벽은 고을과 거리가 10여리 떨어져 땅이 궁벽지고 사람의 자취가 드물어 이리와 호랑이가 들끓고 족제비와 박쥐가 우글거리니 다만 산골 늙은이가 밭을 일구며

43) 金誠一, 『鶴峯全集』鶴峯續集 第5卷 記 「遊赤壁記」

그 사이에서 세상을 흘겨보며 누추하게 살고 있었다. 장원이 한 번 자취를 끊은 후에 뒤를 이은 자가 없으니, 풍류와 회포를 알아 줄 이가 없게 된 지 거의 수 백년이 되었다. 그러다 사인 최신재가 종종 때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이 고을로 유배되었는데, 하루는 손님과 동반하여 달천에서부터 물의 원류를 더듬어 이 명승을 찾게 되었다. 이에 남방 사람들이 비로소 적벽을 알게 되어 시인 묵객의 노는 자취가 잇달게 되었으니 임석천이 명을 짓고 김하서가 시를 지어 드디어 남국의 명승지가 되었다.⁴⁴⁾

고경명의 기록에 의하면 적벽은 최산두로 인해 알려졌고, 林億齡(1496~1568)과 金麟厚(1510~1560)의 글을 통해 명승지로까지 발전했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적벽은 무등산과 함께 호남을 대표하는 명승지가 되었고, 호남을 찾은 유람객들은 하나같이 무등산과 적벽을 함께 유람했다.

먼 곳에서 호남 유람을 하던 중 무등산과 적벽을 함께 유람한 인물로는 김창협과 송병선, 한장석 등을 들 수 있다. 송병선의 경우 앞서 살펴본 「서석산기」에는 적벽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문집 『淵齋集』을 보면 그의 유람 여정은 “지리산 - 서석산 - 적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⁴⁵⁾ 한장석 역시 전라도를 유람할 때 동북의 적벽과 광주의 무등산을 같이 유람했다.⁴⁶⁾ 김창협의 글에도 서석산과 적벽은 같이 등장하는데, 다음은 김창협의 나이 27세 때 동북 현감으로 가는 조경망에게 쓴 서신이다.

서석산은 호남의 여러 산 가운데 특별히 높고 큰데, 그 위에 오르면 한라산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나는 家親이 남주에 귀양 가신 뒤로 해마다 찾아가 안부를 살폈는데, 그때마다 그 산 밑의 길을 지나가면서 드높은 모습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해 왔다. … 조공을 만나 그와 함께 적벽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구경해야겠다. 그러고는 서석산 정상에 올라 남해를 굽어보고 바다 속에 구름처럼 아른아른한 것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키며 “저것이 한라산이다.” 할 것이니, 이 어찌 참으로 뛰어난 장관이 아니겠는가.⁴⁷⁾

44) 高敬命, 『齋峰集』 「遊瑞石錄」 (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50p)

45) 宋秉瑤, 『淵齋集』

46) 韓章錫, 『眉山集』

이 서신의 내용을 보면 김창협은 평소 서석산을 유람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중 김창협이 재종조부 김광현의 외손자인 조정망이 동복 현감이 되자 그의任地에 있는 적벽을 유람하고 뒤이어 서석산도 유람하고자 한 것이다.

1722년에 호남을 유람한 李夏坤(1677~1724) 역시 적벽을 유람한 이후 서석산을 유람하고자 했지만 이하곤의 유람 당시는 겨울이어서 서석산은 눈에 뒤덮여 있었으므로 산을 유람하지 못했다. 이에 이하곤은 “산에 금방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눈이 많이 쌓여서 접어야만 했다.⁴⁷⁾”라고 안타까워하며 소쇄원으로 향했다.

정약용의 「遊瑞石山記」를 보면, 화순사람 조익현이 무등산과 적벽을 비유한 대목이 있다. 조익현은 무등산의 모습을 ‘우뚝 솟은 모습은 마치 거인이나 위엄 있는 선비’라고 말했고, 이에 앞서 적벽의 모습은 ‘곱게 단장한 여인’으로 비유했다.⁴⁸⁾ 무등산과 적벽은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며 호남유람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47) 金昌協, 『農巖集』 第21券 序, 「送趙使君 宰同福序」

48) 李夏坤, 『頭陀草』 「南遊錄」

49) 丁若鏞, 『與猶堂全書』 「遊瑞石山記」 (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69p)

Ⅲ. 유람 활동과 유산의 기억

1. 풍류와 문기함양

풍류란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운치가 있는 일’ 혹은 ‘속된 것을 버리고 고상한 유희를 하는 행위’ 등으로 해석된다. 사대부들은 자연 속에서 詩·書·琴·酒를 즐기는 것을 풍류라 하며 그들의 문화로 만들었고, 이 풍류문화는 유람 중에 특히 부각되었다. 유람은 일상에서 벗어나 산수를 보며 흥취를 즐기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었기에 유람 중 풍류는 빠질 수 없는 것이었다.

사대부들의 풍류활동은 유람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1935년에 무등산을 유람한 梁會甲(1884~1961)은 무등산에 오르기 전부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그의 유람에서 기록 「서석산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을해년(1935) 5월에 벗 栗溪 鄭琦(1879~1950)가 편지를 보내와 ”장차 적벽과 서석의 강과 산에서 마음껏 노닐며 회포를 풀고자 하네.“라 하였다. 나는 상쾌한 흥감이 일어 율계를 적벽에서 만났는데, ... 배를 불러 강물에 띄우고 저물녘 丁秉燮의 집에 들어가 밤새도록 풍류를 즐겼다. 다음날 물염정에서 술 마시며 시를 읊고서 마침내 서석산으로 출발했다.⁵⁰⁾

적벽에서 만난 양회갑 일행은 적벽과 정병섭의 집에서 각각 풍류를 즐기고, 다음날 물염정에서도 흥취를 한껏 돋운 다음에야 서석산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인다. 李淵觀(1857~1935) 역시 무등산에 오르기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었는데,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술을 청하여 두세 잔을 마신 이후에 느린 걸음으로 길을 걸으니 발이 작은 수레인 듯하였다. 술의 흥취가 바야흐로 무르익은 데다가 겹하여 정다운 벗들과 어께

50) 梁會甲. 『正齋集』 8卷, 「瑞石山記」 (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194p)

를 나란히 하여 지팡이를 들어 새를 쫓고, 돌을 던져 물고기를 맞추니 나들이의 괴로움과 길의 험함을 알 수 없었다.⁵¹⁾

양희갑과 이연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인과 함께 유람을 떠난 사대부들은 유람을 시작하면서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유람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된 풍류는 그들이 유람하는 동안 유람지 곳곳에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사대부들은 유람 중 풍류를 위해 때때로 악공과 기생을 유람에 동반하기도 했다. 유람에 악공을 대동할 경우 기본이 되는 것은 피리 악공이었고, 규모에 따라 소리꾼과 거문고·아쟁·비파 악공까지 대동하는 경우도 있었다.⁵²⁾ 1574년 무등산을 유람한 고경명의 기록에서 악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생이 암자의 서쪽 단상에 앉았는데 그 서편에 전나무 두 그루가 마주 서있고 그 아래에는 바위가 있어 발을 들여 놓을 만 하였다. 조금 후에 관관과 찰방이 뒤쫓아 당도하여 악공들로 하여금 천왕봉과 비로봉에 올라 첫대 몇 곡조를 불게 하니 그 음운이 어렴풋하여 생황과 옥통소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마침 한 승도가 있어 절조에 맞추어 손뼉치며 춤을 추니, 죽히 한바탕 웃는 즐거움이 되었다.⁵³⁾

고경명의 유람에는 생황과 옥통소를 부는 악공이 함께한 것으로 보이며, 악공들의 소리는 일행들로 하여금 흥취를 돋우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무등산 유람에서 악공의 등장은 고경명의 경우가 유일한데, 이는 당시 광주목사로 재직 중이던 임훈이 유람을 주도하면서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등산 유람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에는 기생을 대동하기도 했다. 유람을 함께 떠난 기생은 술자리 접대뿐만 아니라 소리꾼과

51) 李淵觀, 『蘭谷遺稿』, 「辛卯遊瑞石錄」(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143p)

52) 이상균, 「조선시대 사대부 유람의 관행 연구」(『사학연구』 106권, 2012), 95p

53) 高敬命, 『齊峰集』, 「遊瑞石錄」(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43p)

악공을 겸하기도 하였으며, 유람자의 수발과 잠자리 수청 역시 도맡았다. 다음의 그림은 조선후기 화가 申潤福(1758~?)의 작품으로 각각 「舟遊淸江」, 「賞春野興」이다. 사대부의 유람에 악공과 기생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림 6. 申潤福. 「舟遊淸江」⁵⁴⁾



그림 7. 申潤福. 「賞春野興」⁵⁵⁾

사대부들은 유람 중 술과 음악을 동반해 풍류를 즐기며 시를 수창했다. 고경명은 무등산 유람 중 광석대에 이르러 일행과 술잔을 나누며 시를 짓다가, 시를 짓지 못하는 자는 그 벌로 술을 마셨다고 기록했다.⁵⁶⁾ 1828년 무등산을 찾은 조봉묵 역시 광석대에서 일행과 둘러앉아 술잔을 나누었는데, 객 중에 악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에 화답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⁵⁷⁾

실제로 사대부들은 유람 도중 혹은 유람 이후에 많은 작품을 남겼다. 유람을 통한 작품의 경우 대부분이 유람 도중 본 풍경 묘사와 이를 통해 느끼는 소취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무등산 유람을 통해 무등산의 경치를 시로 남긴 인물로는 金允植(1835-1922)이 대표적인데, 김윤식은 무등산 유람 중 광석대·입석·천황봉을 둘러보며 각각의 경승지에서 느낀 소취를 각각 다른 시로 남겼다.⁵⁸⁾ 이외에도

54) 申潤福, 蕙園傳神帖 中 「舟遊淸江」, 18世紀, 紙本淡彩, 28.2×35.6cm, 간송미술관

55) 申潤福, 蕙園傳神帖 中 「賞春野興」, 18世紀, 紙本淡彩, 28.2×35.6cm, 간송미술관

56) 高敬命, 『齋峰集』 「遊瑞石錄」 (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48p)

57) 曹鳳默, 『華郊遺稿』 「遊無等山記」 (위의 책 81~82p)

58) 金允植, 『雲養集』 第1券 詩. 昇平館集 「廣石臺」, 「立石」, 「光州無等山天皇峯」

위백규나 정약용의 시 역시 전해지고 있다.⁵⁹⁾

이러한 풍경 묘사 외에도 방문한 유람지를 소재로 한 선인의 시를 읊고, 그 시에 ‘次韻’하여 자신의 시를 짓는 모습도 볼 수 있다. 次韻은 남의 시에 화답하면서 韻字를 그 차례대로 두며 시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특정 유람지를 대표하는 시가 전해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에 다수의 차운 작품이 생겨나기도 했으므로, 김창협 시 <적벽>이 이에 해당한다.

連峯無數上青天	잇닿은 봉우리들 푸른 하늘 치솟고
下有滄浪一道川	그 아래 쪽빛 물결 한 줄기 감아도네
削出層巖類神鬼	깎아지른 험한 바위 귀신 모습 영락없고
結爲空翠似雲煙	맺혀 서린 산안개 구름 연기 흡사하이
松杉盡向潭中寫	소나무 전나무들 못속에 다 비치었고
日月疑從石上懸	해와 달은 그야말로 돌 위에 매달린 듯
見說陰厓有巢鶴	높은 비탈 저 위에 둥지 튼 학 있다 하니
夜深應夢羽衣仙	깊은 밤 잠자리에 깃옷 신선 꿈을 꾸리 ⁶⁰⁾

김창협의 뒤를 이어 적벽을 유람한 曹兢燮(1873~1933)과 김윤식은 위의 시를 차운하여 각각 「赤壁用農巖韻」⁶¹⁾, 「同福赤壁亭敬次農巖金先生韻」⁶²⁾를 남겼다.

이 같이 유람 중 풍류활동의 일환으로 시를 짓는 모습은 여러 기록에서 빈번하게 확인된다. 특히 유람 중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보다 다양한 詩題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대부들은 유람 중의 문예활동이 예술능력 향상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이에 사대부들의 예술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유람을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음은 중종 37년(1542) 魚得江(1479~1550)이 올린 상소문의 일부이다.

59) 魏伯珪, 『存齋集』 第1卷 詩, 「遊瑞石山」

丁若鏞, 『茶山詩文集』 第1卷 詩, 「登瑞石山」

60) 金昌協, 『農巖集』 第1卷 詩 「赤壁」

61) 曹兢燮, 『巖棲集』 第6卷 詩 「赤壁用農巖韻」

62) 金允植, 『雲養集』 第1卷 詩, 昇平館集, 「同福赤壁亭敬次農巖金先生韻」

대체로 詩는 溪山·江湖 사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세 사람 김시습이 출가하여 우리 나라 곳곳을 다니며 지은 詩文이 당시 제일이었습니다. 唐나라의 張說은 악주 원으로 있으면서 아름다운 강산 때문에 詩思가 크게 향상되었고, 漢나라 사마천은 禹穴과 衡·湘 땅을 탐방하고는 그의 글이 웅장 심원해졌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젊고 시문에 뛰어난 사람을 가려 使節처럼 금년에는 관동 지방을, 다음해에는 영남 지방, 호남 지방, 호서 지방, 서해 지방, 관서 지방, 朔方을 차례로 드나들면서 모두 탐방하게 하되 마음대로 실컷 유람하면서 그 氣를 배양하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 사신이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⁶³⁾

어득강은 김시습과 중국사람 장열·사마천을 예로 들며 유람을 통한 문기함양⁶⁴⁾을 강조하면서, 사대부들의 제술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유람을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마천의 유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임훈이 고경명에게 무등산 유람을 제안하는 서신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서신을 통해 사마천의 문장은 유람에서 얻은 것임을 강조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마자장이 일찍이 유람을 좋아하여 그 족적이 하루만 머문 곳은 없다. 長淮에 배 띄우고 雲夢을 바라보며 大梁의 옛 터를 지나 劔閣의 잔도를 넘어서 제나라 노나라 땅에서 학문을 익히고, 鄒嶧에서 鄉射를 하였다. 무릇 천지간에 만물의 변화는 자장이 모두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그 글이 변화무쌍하고 만상이 四時를 받들듯이 하였으니 이것은 유람하면서 얻은 바이다.⁶⁵⁾

실제로 사마천은 20세에 江淮을 비롯한 산천을 유람하며 얻은 기운을 통해 『사기』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때문에 많은 유람인들은 유람을 떠나기에 앞서 사마천을 언급하며, 문기 함양을 유람의 명분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63) 『中宗實錄』 37년 壬寅(1542) 7월27일(乙亥) 기사.

64) ‘문기함양’이라는 단어는 이상균의 논문 「조선시대 사대부의 유람 양상」(2011)에서 참고하였다.

65) 林薰, 『葛川集』 卷2, 文, 「送澄上人遠遊序」

사대부들의 유람 중 풍류활동은 유람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어졌는데, 술로써 여독을 풀고 유람하는 동안 느낀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나도규는 그의 기록 「서석록」의 말미에 유람을 마치고에 앞서 일행들과 옛 거처로 돌아와 각각 시운 한 수씩을 읊고는 자리를 파했다고 기록했다.⁶⁶⁾ 고경명 역시 유람을 마치고전 마지막 경유지였던 소쇄원과 식영정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일. 무진. 일기가 청명하였다. 아침에 창평현령 이공이 찾아와 선생을 뵙고 인하여 서하당에 술자리가 마련되었다. 일원이 소쇄원으로부터 나중에 오게 되어 별주로 큰 술잔에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한창일 때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니, 여러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관관이 가장 나중에 일어나거늘 나와 강숙이 그를 만류하고 식영정에 올라가 다시 술자리를 열매 술잔이 오가며 환단과 해학이 벌어졌으니, 장자가 말한 ‘불을 지피는 자는 아궁이를 닦고 함께 묵은 나그네는 자리를 닦는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이었다.⁶⁷⁾

이 같이 사대부들은 유람의 시작부터 끝까지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의 유람에는 때때로 악공과 기생이 함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부족함은 없었다. 사대부들은 유람을 시작하면서 그 간의 회포를 풀며 유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유람도중에는 눈앞 경치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며, 유람을 마친 이후에는 여독을 풀며 유람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풍류는 유람활동 중 대표적인 활동으로써 유람의 시작과 끝을 같이했다.

66) 羅燾圭, 『德巖漫錄』, 「瑞石錄」(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99p)

67) 高敬命, 『齊峰集』 「遊瑞石錄」(위의 책 52p)

2. 사찰의 지원과 교유

한편 유람을 떠난 사대부는 유람 내내 사찰의 지원을 받고, 승려들과 교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성리학에 기반을 둔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불교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나, 유람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승려와의 교유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유람이 이루어지는 산중에서 사찰과 암자는 단순한 유람 경유지 이상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대부들의 유람 일정 중 숙식의 대부분을 사찰이나 암자에서 해결했으며, 익숙하지 않은 산길의 길잡이로 승려를 동원했으므로 유람을 떠난 사대부들이 佛家の 승려와 교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였으며, 이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 중 특징적인 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무등산 유람경로에서도 수많은 사찰과 암자를 볼 수 있다. 그 중 유람객의 숙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무등산 내의 사찰과 암자는 증심사·원효사·규봉암 등 11곳으로 나타나며, 이 각각의 장소에서 숙박을 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표 3>. 무등산 사찰 숙박

숙박지	숙박한 인물	유람시기	숙박지	숙박한 인물	유람시기
증심사	고경명	1574년 4월	상원암	나도규	1870년 4월
	나도규	1868년8월	지장암	조종덕	1919년 가을
	이연관	1891년 봄		이정희	1919년 4월
원효사	송병선	1898년 3월	심적암	홍삼우당	1886년 여름
원효암	이연관	1891년 봄	규봉암	김운덕	1909년 4월
염불암	고경명	1574년 4월		고재봉	1895년 4월
문수암	고경명	1574년 4월		양희갑	1935년 5월
만연사	조봉묵	1828년 여름	어사암	고재봉	1895년 4월

위 표를 보면 무등산 내에서 숙박이 이루어진 장소는 특정하게 집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산중유람의 특성상 날이 어두워지면 가까운 곳의 사찰이나 암자로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증심사와 규봉암의 경우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작용한다.

증심사는 무등산을 유람하는 진입로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무등산 유람의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다. 증심사에서 숙박을 한 인물인 고경명·나도규·이연관이 모두 광주사람이며, 이들의 유람에서 증심사가 가장 첫 경유지였던 점은 무등산 유람에 있어서 증심사의 역할을 보여준다. 증심사는 산의 도입부에 있는 사찰로 본격적인 산행을 하기에 앞서 긴 휴식을 갖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다. 실제로 세 사람 모두 증심사에 낮에 도착했음에도 곧바로 산행을 시작하지 않고 하룻밤 머무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규봉암은 빼어난 경치로 유명하여 유람객들이 일부러 찾아간 듯하다. 규봉암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운덕은 다음날 규봉암의 경치를 보고, “규봉암은 하늘이 지은 것이다.”라며 감탄하였고,⁶⁸⁾ 高在鵬(1869~1936)과 함께 규봉암에서 묵은 鄭子仰 역시 규봉암에 이르러 “여기에서 하루 밤 묵어 갈 만하니, 아름다운 밤 풍경과 시원한 아침 경치를 세상 사람들은 금강에 견준다네.”라고 말하였다.⁶⁹⁾ 지장암에서 숙박을 한 李正會(1858~1939) 역시 사실 규봉암에서 숙박을 하고자 했으나, 규봉암을 찾아가는 길에 지장암을 추천받아 지장암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특정 이유를 가지고 찾은 장소든 어두워진 산중에서 우연하게 들린 장소든 많은 사찰과 암자는 유람 온 사대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소였다. 사대부들은 이 곳의 승려들로부터 식사나 술자리를 대접받았고, 잠자리를 빌렸다. 이연관은 증심사에서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이를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실에 자리를 정한 후, 심부름을 하는 승려가 밥상을 들여오는데, 송이국과 불두나물이 풍족하게 갖추어 있어 색다른 향기가 입안에 가득하였다.⁷⁰⁾

이연관은 무등산을 본격적으로 유람하기에 앞서 증심사에서 하룻밤 묵으며 숙식을 해결했다. 그날 저녁 이연관은 송이국과 불두나물로 구성된 저녁식사를 대접받았으

68) 金雲惠, 『秋山遺稿』 3卷, 「瑞石遊覽記」(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152p)

69) 高在鵬, 『翼齋集』, 「遊瑞石記」(위의 책 182p)

70) 李淵觀, 『蘭谷遺稿』, 「辛卯遊瑞石錄」(위의 책 144p)

며, 음식의 향이 좋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도규 역시 상원암에 투숙하면서 그곳 승려들에게 접대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해는 서산에 지고 달빛이 비추어 상원암에 투숙하였다. 암자는 매우 맑고 깨끗하였으며, 스님들은 매우 간소하였다. 이른바 운담상인이라는 분이 밖에까지 나와 맞이하며 부들자리를 펴고 예의를 갖추어 손님으로 대해 주었다.⁷¹⁾

또한 승려는 산의 지형을 가장 잘 아는 존재였으므로 많은 사대부들은 이들에게 유람의 길잡이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부탁을 받은 승려들은 직접 유람에 동행하여 길안내를 해주거나 혹은 사람을 따로 붙여주었다. 1868년에 무등산을 유람한 나도규는 증심사 승려 海禪에게 길안내를 부탁하였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상방의 여러 벗들과 함께 모여서 주점에서 아침을 먹고 유산할 채비를 갖추어 해선에게 부탁하였다. 해선이 절에서 산을 익숙하게 볼 줄 아는 자를 택하여 앞길을 인도하게 하니, 곧 초사일 무신일이었다.⁷²⁾

해선은 전날 밤 나도규 일행에게 자신의 상방을 내어주며 숙박하도록 하였고, 다음날 유산할 채비를 갖추던 나도규 일행이 길안내를 부탁하자 유람동안 길안내를 해줄 사람을 붙여준다. 1886년 무등산을 찾은 洪三友堂(1848~?)의 기록 「瑞石錄」에서도 승려에게 길안내를 부탁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한유의 정성 남악인 형산에서 기도하니,
밤새 뒤덮인 구름 못봉우리에 말끔히 걷혔네.
천 만 바위 골짜기에 길 물을 사람 없으니,
원컨대 선가의 길 인도하는 동자를 빌고자 하오.⁷³⁾

71) 羅壽圭, 『德巖漫錄』, 「瑞石錄」(위의 책 113p)

72) 羅壽圭, 『德巖漫錄』, 「瑞石錄」(위의 책 91p)

73) 洪三友堂 『三友堂集』, 「瑞石錄」(위의 책 130p)

홍삼우당은 심적암에서 만난 승려 雪庵과 교유하던 중 위와 같은 시를 남김으로써 길안내를 구한다. 이에 설암은 한 사미승으로 하여금 일행의 길안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밖에도 승려의 길안내를 받은 유람객은 고경명·조봉묵·고재봉·김운덕 등이 있으며, 조종덕 역시 유람 도중 승려에게 길을 물어 규봉암을 찾아갈 수 있었다. 이 중 김운덕은 “이 산의 비할 데 없는 경치를 값을 지불하지 않고 본 것은 스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처럼 할 수 있었겠소.”⁷⁴⁾ 라며 증심사 승려 鶴傘이 길안내를 맡아준 것에 대해 매우 고마워했다.

길안내를 맡은 승려는 때때로 사대부들의 가마꾼으로 동원되기도 했다. 사대부들은 말을 타고 유람을 하다가도 등산을 할 때에는 가마를 뺐는데, 유람 길은 대부분 험준한 산길이었으므로 종을 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길에 밝은 승려들을 가마꾼으로 썼다.



<그림 8> 鄭澈, 『辛卯年 楓嶽圖帖』 中 「百川橋」⁷⁵⁾ 일부

위 그림은 1711년 금강산을 유람한 정선의 그림 「百川橋」의 일부이다. 그림을 보면 유람을 즐기고 있는 사대부들 뒤편으로 고깔 쓴 승려들을 볼 수 있다. 승려들

74) 金雲惠, 『秋山遺稿』 3券, 「瑞石遊覽記」(위의 책 154p)

75) 鄭澈, 辛卯年 楓嶽圖帖 中 「百川橋」, 1711年, 絹本淡彩, 39×34cm, 국립중앙박물관

은 가마 옆에서 앉아있는데, 이는 승려들이 가마꾼으로 동원된 것임을 나타낸다. 승려의 가마를 타고 유람하는 사대부들의 모습은 조선시대 유람기록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조선시대 유람 관행 중 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⁷⁶⁾

무등산 유람에서도 역시 가마는 등장한다. 고경명은 증심사에서 무등산 등산을 준비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마부를 물리치고 종들을 간단히 거느려 야복을 입은 채, 대로 엮은 가마를 타고 사승 조선으로 하여금 길을 인도하게 하여 증각사로 향하였다.⁷⁷⁾

고경명은 전날 말을 타고 증심사까지 왔다. 이는 취백루 가는 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내가 이에 말에서 내려 옷을 벗고 맑은 물에 발을 씻으며…⁷⁸⁾”라는 대목으로 알 수 있다. 이전까지는 말을 타고 이동한 고경명 역시 산길에 앞서 마부를 돌려보내고 가마를 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승려를 가마꾼으로 썼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지만, 조선시대의 유람 관행을 보면 길안내를 맡은 승려 조선의 역할을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산중유람을 떠난 사대부들은 여러 측면에서 佛家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승려와의 교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일부 사대부들은 이러한 유람 중 승려와의 교유를 매우 좋아하기도 했는데, 이는 崔昱(1539~1612)의 시 「惠允卷韻」에 잘 드러난다.

平生喜見名山僧	명산의 스님 보는 것을 평소에 좋아하였는데
亂後僧多住五陵	난리 뒤론 오릉에 있는 승려가 어찌나 많은지
安得太平身再健	언제나 태평 시대 만나 나도 기력을 되찾아서
名山隨處共僧登	명산을 두루 유람하며 스님과 등반해 볼거냐 ⁷⁹⁾

76) 이상균, 「조선시대 유람문화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48p

77) 高敬命, 『薺峰集』 「遊瑞石錄」 (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39p)

78) 高敬命, 『薺峰集』 「遊瑞石錄」 (위의 책 37p)

79) 崔昱 『簡易集』 第8券 還朝錄, 「惠允卷韻」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 徐居正(1420~1488) 역시 승려와의 교유를 매우 즐거워하였는데, 다음은 승려와 교유에 대한 그의 기록이다.

내가 산을 유람한 이래로 매일 승려들과 더불어 거쳐하며 때로는 등불을 켜고 차를 달이면서 경학을 담론하고 시를 논하였는데, 자못 뜻이 가는 사람이 있었다. 開慶寺에서는 智牛氏를 만났고, 興德寺에서는 信連·德行·楚牛·伊悅氏를 만났다. 하루는 절의 누대에 올랐는데 연꽃이 만개하고 밝은 달이 중천에 떴다. 몇몇 승려들을 불러 聯句를 짓는데, 그 자리에 온 한 스님이 있었으니 그 용모가 마르고 정신이 맑아 내가 진실로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윽고 對句를 짓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놀랄만하였으므로 나는 스님을 만난 것을 기뻐했다.⁸⁰⁾

서거정은 불교의 虛와 유학의 虛를 비교하며 불교를 신랄하게 비판한 인물이다.⁸¹⁾ 그러나 서거정 역시 산을 유람할 때는 승려들과 경학을 논하고 시를 酬唱하며 교유한 것이다. 무등산 유람에서 역시 사대부와 승려의 교유를 볼 수 있는데, 다음은 홍삼우당이 1886년 무등산 유람을 기록한 「서석록」의 일부이다.

이날 밤 심적암으로 옮겨서 묵었다. … 이들을 지도하는 대사는 雪庵이라 하는 스님인데 그 모습이 매우 깨끗하고 준수하며 식견이 고명하여 글이든 일이든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다. 내가 생각하기로, 이렇게 뛰어난 자질로 만약 유가의 공부에 종사했다면 훌륭한 명성을 얻은 선비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혹하게 이단에 빠져 공문(空門)으로 자취를 감춰 유교에 허물을 짓는 사람이 되었으니 애석하구나. 한유의 <송문창서>에 이르기를, ‘이단의 사람을 유가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의 책을 태워버린다.’고 하였다. 나는 이를 원용하여 이 미혹을 풀어주고자 하였으나 한유같이 도에 거의 가까운 자도 그들의 미혹을 풀어 돌이키지 못했는데, 하물며 나는 한유에 만 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면서 그의 자취를 따르곤 하니 될 일이겠는가? 그러나 태전에게 옷을 남겨준 것은 또한 사람 사이의 정이었다. 나 또한 옷을 남겨 주는 정을 대신하여 시를 남겨둔다.

80) 徐居正 『四佳集』 文集 6卷. 序 「贈熙上人序」

81) 徐居正 『四佳集』 文集 1卷. 記 「虛谷記」

“서석산 바위 앞 길, 스님을 만나 설암을 물었네. 이르기를, 스승은 심적암에 계신데 우리의 도는 그분을 좇아 남쪽으로 왔다고 하네.”⁸²⁾

홍삼우당은 무등산 유람 중 심적암에서 머물다 雪庵이라는 고승을 만나게 된다. 그는 高僧 설암의 모습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며, 이러한 인재가 미혹한 이단에 빠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뒤이어 홍삼우당은 한유가 승려인 태전과 교유하다 작별할 때 의복을 징표로 남긴 것을 언급하며, 자신은 설암에게 시를 남기는 모습을 보인다. 홍삼우당의 경우와 같이 詩는 사대부들과 승려와의 교유에서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조선 중기 이후 불가에서는 ‘詩僧’이라는 시 짓기 전문 승려가 등장하여 사대부들과 함께 수창을 하기도 하였다.⁸³⁾ 다음의 그림은 安時潤이 1857년 3월 보름에 여러 벗들과 북한산 重興寺에서 금란계라는 詩會를 결성한 뒤 이를 기념하여 제작한 계첩의 일부이다. 이 그림을 보면 문인들뿐만 아니라 승려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그림이 그려진 시기를 보면 詩僧과의 교유는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作者未詳, 「金蘭契帖」⁸⁴⁾ 일부

82) 洪三友堂『三友堂集』, 「瑞石錄」(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129~130p)

83) 김상일, 「조선중기 사대부의 승려와의 교유사 연구」(『한국어문학연구』 39권, 2002), 222쪽

승려들은 유람 오는 사대부들에게 대부분 시를 부탁하였고, 부탁을 받은 사대부들은 자신의 유람 동안 힘쓴 승려들의 노고를 시로써 보답했다. 이렇게 전달된 사대부들의 시는 승려의 두루마리인 僧軸에 기록되어 전해졌다. 물론 시가 아닌 징표를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1909년 무등산을 찾은 김운덕은 증심사 승려 鶴傘에게 징표로 공죽 한 가지를 받았다고 한다.⁸⁵⁾

조선시대 산중 유람에 있어서 승려와의 교류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사대부들이 유람을 하며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승려였고, 또한 유람을 하는 동안에는 사찰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서로 따르는 사상은 다르지만 유람이라는 한정적인 상황에서 사상은 문제될 것이 없었던 듯하다. 유람은 조선시대 대립하는 儒·佛 두 사상 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84) 作者未詳, 「金蘭契帖」, 1857年, 紙本淡彩, 27.0×42.0cm, 국립중앙박물관

85) 金雲惠 『秋山遺稿』 3券, 「瑞石遊覽記」 (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155p)

3. 유산의 기억과 회고

앞서 살펴본 풍류활동이나 사찰의 지원과 교유는 무등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유람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유람 중 활동이다. 무등산 유람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활동 외에 특징적인 활동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역에서 이름난 先人을 기억하며 이를 회고하는 활동이 그것이다.

무등산권역은 예로부터 인물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무등산권역은 넓게는 광주를 포함한 담양, 창평, 화순까지도 포함하는데, 고경명·정충신·김덕령과 같은 많은 인물이 이 지역에서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충의와 학문·문장 분야에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무등산을 찾은 유람객들이 무등산의 경치를 보고 이들을 기억하는 행위는 많은 유람기록에서 볼 수 있는데, 다음은 이러한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난 나도규의 「서석록」 일부 내용이다.

서석의 서쪽은 즉, 광주의 읍터이고, 읍의 서쪽에는 가파르고 가파른 하나의 큰 산이 있으니 곧, 금당이다. 금당의 서쪽에 출몰하여 보일락말락하며 잠깐 일어났다 가 잠깐 엎드려 높은 산에 정기가 길러져 있는 곳은 송학이요, 송학의 북쪽은 늘재 박상 선생이 탄생한 곳이며, 송학의 남쪽은 제봉 고경명·준봉 고종후·학봉 고인후 선생이 기거했던 언덕이다. 땅이 신령하여 큰 현인은 어찌 그리도 장한가? 송학산의 서쪽 높이 솟은 곳이 봉황산이니 정헌 고순후의 충의와 매백 오공의 문장이 이미 옛날에 칭송되었는데, 지금은 그들을 이을 자 없으니 깊이 탄식할 만하다.

서석의 북쪽이 이치가 되니 이치는 굴곡지기도 하고 평평히 펼쳐져 충효리가 되었다. 충효리는 곧,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유허지이다. 꾸불꾸불한 풀 무성한 사십리쯤에 고봉 기대승이 수학했던 임곡과 소재 박광일이 강토했던 진호가 있으니 어찌 서석의 맑은 기운이 용솟음쳐 덕이 높은 학자들이 이 곳에서 나왔고?⁸⁶⁾

나도규는 늘재 박상·제봉 고경명·준봉 고종후·학봉 고인후·정헌 고순후·매

86) 羅燾圭, 『德巖漫錄』, 「瑞石錄」(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93p)

백 오희일 · 충장공 김덕령 · 고봉 기대승 · 손재 박광일을 언급하며 이들이 나고 자란 지역을 무등산의 산세를 기준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들을 모두 무등산의 정기와 연관 짓고 있다. 이연관 역시 무등산을 유람하다가 고경명, 김덕령 등의 인물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산수가 이처럼 맑고 맑은데 어찌하여 생김새나 재주가 뛰어난 인물이 없었겠는가? 정장군과 김충장의 용력, 고제봉과 정금남의 곧은 충정은 모두 서석산의 원기가 뭉쳐 생긴 것이다.⁸⁷⁾

이연관은 무등산에 올라 맑은 산수를 보고 감탄하였는데, 이 감탄은 인물에 대한 감탄으로 이어진다. 산수의 빼어남과 무등산의 원기가 鄭地(1379~1391)⁸⁸⁾와 金德齡(1567~1596) 그리고 고경명과 鄭忠信(1576~1636)을 배출했다고 말하고 있다. 1886년에 무등산을 오른 홍삼우당은 그의 저서 「서석록」에 무등산을 “대인군자가 엄숙하고 단정하게 앉아 기상이 장중한 것과 같았다.”라고 언급하며 고경명, 박상, 기대승, 김덕령 등을 언급하고 이들은 모두 무등산의 신령스러운 기운에 의해 배출된 것이라고 기록했다. 거기에 과거에는 뛰어난 인물이 많았는데, 자신의 시대에 와서는 인물이 끊긴 것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더해 글을 남겼다.⁸⁹⁾

趙鍾德(1858~1927) 역시 「登瑞石山記」의 말미에 ‘人傑地靈’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이곳에는 일찍이 고씨 세 봉우리가 있어 충성과 효도와 절의가 금석같다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씨 세 봉우리는 제봉 고경명과 그의 두 아들인 고종후·고인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무등산의 지령이 자신의 가문까지 미치길 바라는 인물도 있었는데, 다음은 金泰錫(1872~1933)의 「瑞石山記」 내용이다.

87) 李淵觀, 『蘭谷遺稿』, 「辛卯遊瑞石錄」(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144p)

88) 鄭地 (1379~1391) : 고려시대의 무신으로 호남의 여러 곳에서 왜적을 대파하였고, 요동 정벌 때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동조했음. 시호는 경렬(景烈)

89) 洪三友堂, 『三友堂集』, 「瑞石錄」(위의 책 131p)

아! 충장공 김덕령의 절개와 금남군 정충신의 씩씩함도 모두 땅의 신령과 산의 도움으로 된 것이다. 우리 집이 여기로부터 십여 리 이외의 땅에 떨어져 있어서 마치 가깝게 있는 듯 보이니 우뚝 솟은 산신령이 혹여 어둡고 어두운 곳에 도움을 주어 우리 자손으로 하여금 정공과 같은 사람이 얻어지기를 바라고 바란다.⁹⁰⁾

김태석은 김덕령과 정충신을 언급하며, 이들은 무등산의 도움으로 배출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본인의 집도 무등산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 무등산 지령의 도움을 받아 정충신과 같은 영웅이 가문에서 나오길 기원하고 있다. 이밖에 양희갑·金鎬永(1907~1984) 등도 무등산을 유람하며 무등산 배출 인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무등산의 기운과 연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등산을 인물과 연결 짓는 인식은 무등산 유람에서만 나타나는 한정된 인식이 아닌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던 듯하다. 무등산을 유람한 이들이 남긴 유람기록을 제외한 다른 기록들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먼저 조선 후기의 지리지 『택리지』를 보면 광주에는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 많다고 기록되어있으며,⁹¹⁾ 姜沆(1567~1618)의 「광주향교 상량문」에는 호남이 인물의 부고라고 언급되어있다.

하물며 호남은 인물의 부고요 실로 해외의 염락관민이라. 광산은 만 호나 되는 큰 고을이요, 지방은 남도의 으뜸이다. 서석산은 우람하게 뻗쳐 나와 만장으로 벽이 서 있고, 극락강은 크고 깊어 구비 쳐서 천 마을을 안고 간다. 산신은 나라의 기둥이요, 지령은 인걸을 낳았다. 기고봉의 바른 학문은 서락의 진원이요, 박눌재의 높은 이름은 북두처럼 높은 산이다. 충신효자가 모두 한 가정 속에 모여 있고, 명경거공이 백리 안에서 배출되었다.⁹²⁾

강항은 호남은 인물의 부고라고 정확히 지칭하며, 언급한 인물들을 무등산과 연결시키는 모습까지 보인다. 무등산의 신령스러운 지령이 인걸을 낳았다고 하며, 고

90) 金泰錫, 『蘭溪遺稿』 2券, 「瑞石記」(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192p)

91) 李重煥, 『擇里志』 팔도총론, 전라도

92) 姜沆, 『睡隱集』 2, 上梁文, 「光州鄉校上梁文」

봉 기대승이나 놀재 박상과 같은 충신효자나 명경거공은 무등산의 지령과 관계있다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김육은 그의 저서 『潛谷遺稿』에 「送高壯元朝京」라는 시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瑞石之山高萬仞	서석산 높고 높아 만 길이나 되는데
千峯東立天中央	천 봉우리 뻗쭈뻗쭈 하늘 속에 솟았어라
扶輿磅礴淑氣窮	솟구치어 뿔뿔져서 맑은 기운 다 모음에
孕精幾作邦家光	배인 정기 몇 차례나 나라 인재 배출했나
勃興得我苔軒公	발흥하여 태헌공 그 분께서 태어남에
摩天義氣凌秋霜	하늘 닿는 그 의기는 추상보다 더 하얗네
精忠偉節照宇宙	그 정충과 그 위절이 우주를 비춤에
景仰餘韻猶沾裳	남긴 풍모 흠양하니 눈물 옷깃 적시어라
吾生恨不舉公輿	내 평생에 한 되는 건 공 모시지 못한 걸로
思識子孫欽遺芳	공의 유방 흠양하여 자손 사귄 생각했네 93)

태헌은 고경명의 호이며, 고경명은 전라도 광주에서 출생한 조선 중기 문인이다.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였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두 아들과 함께 의병활동을 하던 중 금산에서 전사하였다. 사후 그의 공적을 기려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김육은 서석산의 맑은 기운이 발흥하여 고경명이 등장한 것이라 기록하며, 이어서 고경명을 모시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 말하고 있다. 다음은 정약용의 시 「重過光州」의 내용이다.

每過光山府	언제나 광산부를 지나갈 적엔
長懷鄭錦南	가슴속에 정금남 생각이 나네
地如從直劣	신분은 종직처럼 미천했으나
才比舜臣堪	재주는 이순신과 견줄 만했지
古廟風雲氣	옛 사당엔 풍운의 기운 서렸고
遺墟父老談	남은 터엔 부로들 전설 전한다

93) 金堉, 『潛谷遺稿』 第1卷. 詩. 七言古詩. 「送高壯元朝京」

雄哉瑞石鎮
亭毒出奇男

웅장할사 서석의 드높은 진산
정기 모아 기남자 탄생시켰네⁹⁴⁾

금남은 정충신의 봉호이다.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난 정충신은 지모가 뛰어나고 문무의 재주를 겸비하여 임진왜란 때는 권율의 휘하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갑자년에 이괄의 반란을 진압하여 振武功臣 1등이 되었으며, 정묘호란 때는 부원수로서 적과 싸우는 등 전후에 걸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정약용은 광주를 지날 때 마다 이런 정충신을 생각하며, 정충신은 서석산의 정기가 모여져 탄생한 기남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張維(1587~1638) 역시 「정금남에 대한 만시」의 시작부분에 ‘무등산의 수려한 기운’을 언급하면서 정충신이 무등산의 기운으로 배출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⁹⁵⁾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이름난 인물들은 무등산과 동일시되기도 했는데, 대개 인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는 기대승의 문집 『고봉집』에 실린 두 글에 잘 나타난다. 다음은 기대승의 죽음 후 具鳳齡(1526~1586)과 장흥부사 鄭仁寬이 남긴 글의 일부이다.

① 瑞石新摧第一峯 서석산 제일봉이 뜻밖에 부러졌구나
斯人何使涕垂膺 이 사람 무슨 일로 눈물 떨구게 하는지⁹⁶⁾

② 嗚呼噫噫 아 슬프오이다
山頽瑞石 서석산 무너지니
吾將安仰 내 어디를 우러르며
哲萎南湖 호남에 철인 없으니
吾將安放 내 누구를 의지하리⁹⁷⁾

94) 丁若鏞, 『茶山詩文集』 第1卷. 詩. 「重過光州」

95) 張維, 『谿谷集』 谿谷先生集 第29卷. 五言排律 「挽鄭錦南 十二韻」

96) 奇大升, 『高峰集』 高峰別集 附錄 第2卷. 挽章. 「九」

97) 奇大升, 『高峰集』 高峰別集 附錄 第1卷. 祭文. 「五」

황현이 김덕령을 애도하며 쓴 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다.

瑞石一摧天柱峯

서석산 천주봉이 한 번 무너지자

千秋惟見愁雲積

천추토록 오로지 슬픈 구름만 쌓였네⁹⁸⁾

구봉령과 정인관, 그리고 황현은 자신이 애도하는 인물의 죽음을 모두 무등산이 무너진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는 무등산의 기운으로 훌륭한 인물이 배출된 것이며, 때문에 그 인물을 무등산과 동일시하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록들에서 나타나는 무등산을 인물과 연결 짓고, 그 인물의 기원을 무등산의 정기에서 찾는 것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 보편적인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등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무등산을 유람한 사대부들로 하여금 유람 중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무등산 유람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98) 黃玪, 『梅泉集』第4卷 詩 壬寅稿 「忠孝里哀金將軍」

V. 맺음말

본 논고는 조선시대 무등산 유람 기록을 자료로 하여, 무등산 유람의 실태 및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지금까지 선행된 무등산 유람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문학·한문학적 접근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보다 역사적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이다. 진산은 ‘한 마을이나 고을의 중심이 되는 산’을 의미한다. 광주의 진산이 무등산이라는 기록은 조선 시대 편찬된 다양한 지리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진산이란 고을을 지켜준다고 여기는 산이었으므로 영험하고 신령스러운 존재 그 자체였고, 이는 무등산도 마찬가지였다. 일 반백성에서 호남 전역의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물들이 무등산에 각종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찾아왔고, 무등산에서의 제사는 효험이 있었다. 굳건한 진산이자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인식은 무등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져 많은 사대부들로 하여금 찾게 하였다.

무등산을 찾은 유람인은 크게 무등산 인근 호남 지역 출신인물과 외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등산을 찾은 유람인 대부분은 광주지역에 거주한 고경명, 나도규, 김운덕을 비롯하여 화순, 보성, 순천 등 호남 지역에 거주한 인물이며, 이외에 외지인으로써 무등산을 찾은 인물로는 김창흠, 김병연, 송병선 등이 있다. 이들은 특히 전국팔도 각지의 명소를 유람한 인물로, 이들이 무등산을 찾았다는 사실은 무등산이 지방의 한 유람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름난 유람지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많은 지방관들 역시 부임 중에 무등산을 유람했다는 것은 이러한 유람지로써 무등산의 위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들은 유람의 출발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진입로를 이용했다. 무등산 유람에 사용된 진입로는 크게 중심사 방면, 화순 방면, 담양 방면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중심사 방면은 광주에서 출발한 유람자들이 많이 이용한 무등산의 서쪽 진입로로, 광주 사람인 고경명, 나도규, 이연관이 이 진입로를 이용했다. 두 번째로는 담양 방면의

무등산의 북쪽 진입로인데, 이 길을 이용한 유람객들은 무등산 유람에 앞서 소쇄원 일대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진입로는 무등산의 동남쪽의 화순 방면 진입로이다. 이 진입로는 적벽과 무등산을 잇는 코스로 당시 무등산과 적벽을 함께 유람한 유람객들에 의해 빈번히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무등산과 적벽은 호남지방을 대표하는 유람지로서, 많은 이들이 두 유람지를 같이 유람했다.

이렇게 시작된 무등산 유람에서 사대부들은 다양한 활동을 했다. 가장 먼저 풍류 활동을 들 수 있는데, 풍류는 사대부들의 유람활동 중 대표적인 활동으로써 유람의 시작부터 끝을 함께하는 활동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무등산을 유람하는 사대부들은 증심사·규봉암 등의 사찰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승려들과 교유를 쌓는 모습도 보인다. 사대부들과 승려는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람이라는 한정적인 상황에서 사상은 문제될 것이 없었던 듯하다. 유람은 조선시대 대립하는 儒·佛 두 사상 간의 교유를 이끌어낸 문화행위 중 하나였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두 활동은 무등산을 제외한 다른 유람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유람 활동이다. 무등산 유람에서는 이런 보편적인 활동과 더불어 무등산 유람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활동도 나타나는데, 이는 바로 무등산의 경치를 보며 이 지역에서 배출된 이름난 인물들을 기억하며, 이를 무등산과 연결 짓는 것이다. 무등산권역은 예로부터 인물의 고장으로 나타나는데, 그 인물의 기원을 무등산의 정기에서 찾는 것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 보편적인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등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무등산을 유람한 사대부들로 하여금 유람 중 활동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결국 다른 지역 유람과는 차별화된 무등산 유람만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살펴보았다. 보다시피 본 연구는 조선시대 무등산 유람 문화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연구에 불과하다. 무등산 유람 문화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무등산 유산 자료의 발굴을 꾸준히 진행하며, 이에 대한 역사학적인 접근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점은 향후 과제에 남겨두며, 이러한 연구에 앞서 본 연구가 무등산 유람 문화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附錄] 조선시대 무등산 관련 문집 자료⁹⁹⁾

저 자	생 물 년	문 집	기 록 명
姜 沆	1567~1618	『睡隱集』	「光州鄉校上梁文」
高敬命	1533~1592	『薺峰集』	「遊瑞石錄」
高在鵬	1869~1936	『翼齋集』	「遊瑞石記」
奇大升	1527~1572	『高峰集』	「息影醉後 與高霽峰金上舍景生呼韻」
			「感吟」
			「到圭峯」
			「元曉寺次人韻」
			「次息影亭韻」
			「圭峯遇雨 同諸君賦得松字」
金萬英	1623~1649	『南圃集』	「南郊日記」
金誠一	1538~1593	『鶴峯全集』	「遊赤壁記」
金時習	1435~1493	『梅月堂集』	「登無等山」
金雲惠	1857~1936	『秋山遺稿』	「瑞石遊覽記」
金堉	1580~1658	『潛谷遺稿』	「送高壯元朝京」
金允植	1835~1922	『雲養集』	「廣石臺」
			「立石」
			「同福赤壁亭敬次農巖金先生韻」
			「光州無等山天皇峯」
金宗直	1431~1492	『佔畢齋集』	「光州無等山」
金昌協	1654~1708	『農巖集』	「瑞石記」
			「送趙使君 宰同福序」
金泰錫	1872~1933	『蘭溪遺稿』	「赤壁」
金鎬永	1907~1984	『愼齋漫錄』	「瑞石山記」
羅燾圭	1826~1885	『德巖漫錄』	「瑞石錄」
			「瑞石續錄」
朴光後	1637~1678	『安村集』	「無等山龍湫祈雨祭祝文」

99) 조선시대 무등산을 유람한 인물들이 유람이후 남긴 기록과 유람하지는 않았지만 무등산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는 詩·文 자료를 저자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를 참고하여 파악한 내용이다.

朴祥	1474~1530	『訥齋集』	「遊瑞石山韻 贈鄭萬鍾」
徐居正	1420~1488	『四佳集』	「贈熙上人序」
徐滢修	1749~1824	『明阜全集』	「無等山佛明庵重修募緣文」
宋達洙	1808~1858	『守宗齋集』	「甲寅初夏 遊瑞石山」
宋秉璫	1836~1905	『淵齋集』	「瑞石山記」
宋純	1493~1583	『俛仰集』	「庚辰仲秋 登無等山 口號錄呈石軒先生」
			「議政府右參贊俛仰亭先生年譜」
申翊全	1605~1660	『東江遺集』	「無等山祈雨祭文」
梁在慶	1859~1918	『希庵遺稿』	「遊瑞石山記」
梁進永	1788~1860	『晚義集』	「遊瑞石山記」
梁會甲	1884~1961	『正齋集』	「瑞石山記」
廉在愼	1862~1935	『果菴遺稿』	「遊瑞石山記」
魏伯珪	1727~1798	『存齋集』	「遊瑞石山」
李萬敷	1664~1732	『息山集』	「無等」
李敏鉉	1633~1688	『西河集』	「無等山祈雨祭文」
李安訥	1571~1637	『東岳集』	「遊無等山」
李淵觀	1857~1935	『蘭谷遺稿』	「辛卯遊瑞石錄」
李正會	1858~1939	『心齋遺稿』	「瑞石錄」
李夏坤	1677~1724	『頭陀草』	「南遊錄」
林亨秀	1504~1547	『錦湖遺稿』	「渡濟海 祭瑞石祠」
林薰	1500~1584	『葛川集』	「行狀」
林薰	1500~1584	『葛川集』	「送澄上人遠遊序」
張維	1587~1638	『谿谷集』	「挽鄭錦南 十二韻」
丁若鏞	1762~1836	『茶山詩文集』	「登瑞石山」
			「重過光州」
		『與猶堂全書』	「遊瑞石山記」
丁運熙	1566~1635	『孤舟集』	「遊瑞石山」
正祖	1752~1800	『弘齋全書』	「忠武公鄭忠信致祭文」
鄭之遊	15~16세기	『月城世稿』	「遊瑞石山記」
鄭弘溟	1582~1650	『畸庵集』	「瑞石山賦」
曹兢燮	1873~1933	『巖棲集』	「赤壁用農巖韻」

曹鳳默	1805~1883	『華郊遺稿』	「遊無等山記」
趙寅永	1782~1850	『雲石遺稿』	「登光州無等山」
趙鍾德	1858~1927	『滄庵文集』	「登瑞石山記」
趙纘韓	1572~1631	『玄洲集』	「遊瑞石山」
趙彭年	1549~?	『溪陰集』	「游無等山」
趙希逸	1575~1638	『竹陰集』	「祭無等山神文」
崔昱	1539~1612	『簡易集』	「漂海錄」
崔府	1454~1504	『錦南集』	「惠允卷韻」
崔希亮	1560~1651	『逸翁集』	「遊無等山」
			「無等山逢雨」
韓章錫	1832~1894	『眉山集』	「江南幹事」
洪命元	1573~1623	『海峯集』	「無等山禱雨祭文」
			「與巡相約遊無等山 有風雨之候 洪廣文先賦祝詩以投 因而和之」
洪三友堂	1848~?	『三友堂集』	「瑞石錄」
黃玪	1855~1910	『梅泉野錄』	「甲午以前 上 ⑤」
		『梅泉集』	「忠孝里哀金將軍」

※ 參考文獻

I. 사료

1. 歷史類

『高麗史』,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KOREA>)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太祖實錄』, 『世宗實錄』, 『中宗實錄』,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

2. 地支類

『世宗實錄地理志』,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輿地圖書』,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

3. 文集類

姜沆 『睡隱集』, 奇大升 『高峰集』, 金萬英 『南園集』, 金誠一 『鶴峯全集』, 金時習 『梅月堂集』, 金堉 『潛谷遺稿』, 金允植 『雲養集』, 金宗直 『佔畢齋集』, 金昌協 『農巖集』, 朴光後 『安村集』, 朴祥 『訥齋集』, 徐居正 『四佳集』, 徐滢修 『明臯全集』, 宋達洙 『守宗齋集』, 宋純 『俛仰集』, 申翊全 『東江遺集』, 魏伯珪 『存齋集』, 李萬敷 『息山集』, 李敏鉉 『西河集』, 李安訥 『東岳集』, 李夏坤 『頭陀草』, 林亨秀 『錦湖遺稿』, 林薰 『葛川集』, 張維 『谿谷集』, 丁若鏞 『與猶堂全書』, 正祖 『弘齋全書』, 鄭弘溟 『畸庵集』, 曹兢燮 『巖棲集』, 趙寅永 『雲石遺稿』, 趙纘韓 『玄洲集』, 趙彭年 『溪陰集』, 趙希逸 『竹陰集』, 崔岵 『簡易集』, 崔府 『錦南集』, 崔希亮 『逸翁集』, 韓章錫 『眉山集』, 洪命元 『海峯集』, 黃玹 『梅泉集』

이상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黃玹 『梅泉野錄』,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

II. 단행본

- 박선흥, 『무등산 (무등산의 유래 전설과 경관)』, 책가, 1976
- 최강현, 『한국 기행문학 연구』, 일지사, 1982.
- 이혜순,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일지사, 2001
- 권석환, 『한중 팔경구곡과 산수문화』, 이회문화사, 2004
- 심경호, 『산문기행:조선의 선비,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1,2 , 다할미디어, 2007
- 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국역 『無等山遊山記』, 2010
- 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남도, 영웅이 깃든 땅』, 2011
- 송갑석, 『무등산 역사길이 내게로 왔다』, 심미안, 2011
- 한국문화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무등산 옛길위의 광주』, 2011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사람의 조선여행』, 규장각, 2012
- 광주광역시민속박물관, 『길에서 남도를 만나다』, 2013
- 정치영, 『사대부, 산수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III. 논문

- 권석환, 「중국전통 유기의 핵심시기 문제」, 『한국한문학연구』, 49권 2012
- 권수용, 「16세기 호남 무등산권 원림문화」, 『인문연구』 55권, 2008
- 김대현, 「20세기 무등산 유산기 연구」, 『한국언어문학』 46권, 2001
- 김덕진, 「이하곤의 호남 유람과 소쇄원 방문」, 『지역과 역사』 26권, 2010
- _____, 「나도규의 무등산 유산기와 지역의식」, 『역사와 담론』 65권, 2013
- _____, 「전라도 광주 무등산의 신사와 천제단」, 『역사학연구』 49권, 2013
- _____, 「호남 유산기의 자료적 특징과 의의」, 『국학연구총론』 13권, 2014
- 김상일, 「조선중기 사대부의 승려와의 교유사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9권, 2002

- 김치완, 「영주십경으로 본 조선 유학자의 선경인식과 그 태도」, 『대동철학』 59권, 2012
- 민경준, 「명대후기 유람의 대중화와 여행정보」, 『동북아관광연구』 8권, 2012
- 박명희, 「조선조 문인의 무등산 유람과 시적 형상화」, 『동방한문학』 46권, 2011
- 박찬모, 「고분객의 신악 무등산-이은상의 무등산 유기 고찰」, 『호남문화연구』 53권, 2013
- 안진오, 「무등산권 사림문화의 특징 -호남정신사의 맥락에서-」, 『전통과현실』 15권, 2001
- 이경순, 「18세기 전반 이하곤의 호남여행과 토족 연망」, 『동국사학』 53권, 2012
- _____, 「조선후기 士族의 산수유람기에 나타난 승려 동원과 불교 전승 비판」, 『한국사상사학』 45권, 2013
- 이권재, 「제봉 고경명의 『유서석록』 연구」, 『고시가연구』 8권, 2001
- 이상균, 「조선시대 사대부의 유람양상」, 『정신문화연구』 34권, 2011
- _____, 「조선시대 關東遊覽의 유행 배경」, 『인문과학연구』 31권, 2011
- _____, 「조선시대 유람의 유행에 따른 문화축진 양상」, 『역사민속학』 38권, 2012
- _____, 「조선시대 사대부 遊覽의 慣行 연구」, 『사학연구』 106권, 2012
- _____, 「조선시대 유람을 통한 사대부의 교유양상」, 『사학연구』 106권, 2012
- _____, 「조선시대 유람문화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_____, 「조선후기 地誌의 遊覽詩 수록의 문화사적 의미」, 『민족문화』 44권, 2014
- 이상주, 「담헌 이하곤의 <南遊錄>에 대한 고찰-그 호남풍속지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15권, 1992
- _____, 「18세기 초 문인들의 우도론과 문예취향-김창흡과 이하곤 등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3권, 1999
- 이승연, 「옛 그림을 통해 본 조선후기 명승유람의 형태」, 『한국조경학회』 2005
- 이종목, 「유산의 풍속과 遊記類의 전통 -藏書閣本 『臥遊錄』 과 奎章閣本 『臥遊錄』 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12권, 1997

- _____, 「조선시대 와유문화 연구」, 『진단학보』, 98권, 2004
- 정 민, 「한문학 유산 속에 기려진 무등산의 표상-산수유기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1권, 1998
- 정연식, 「조선시대 여행의 조건」, 『인문논총』 15권, 2006
- 정우락, 「조선시대 영남 선비들의 산수유람과 지향의식」, 『남명학』 19권, 2014
- 정은주, 「조선후기 중국산수관화의 성행과 《오악도》」, 『고문화』 71권, 2008
- 정치영,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관행」, 『문화역사지리』 15권, 2003
- _____, 「유산기로 본 조선시대 사대부의 여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05
- _____, 「日記를 이용한 조선중기 양반관료의 여행연구」, 『역사민속학』 26권, 2008
- _____,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여행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4권, 2008
- _____,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중의 활동」, 『역사민속학』 42권, 2013
- 최석기,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지리산유람과 그 성향」, 『한국한문학연구』 26권, 2000
- 최원석, 「한국의 명산문화와 조선시대 유학 지식인의 전개」, 『남명학연구』 26권, 2008
- _____, 「한국의 산 연구전통에 대한 유형별 고찰」, 『역사민속학』 36권, 2011